

↑ 코스피 2488.18 (+1.51)	↑ 코스닥 811.11 (+1.75)
↓ 금리 (미국 9년) 3.710 (-0.034)	↓ 환율 (원·달러) 1296.90 (-3.90)

美中 정상회담
고위급 군사대화
재개 합의
02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던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복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수능 끝... '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50만명, N수생 16만명 응시
공교육 내용만으로 고르게 출제
국어·수학 난이도 대체로 어려워

4년 만에 코로나19방역없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교육과정 밖 '초고난도(킬러)문항'은 없었지만,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16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올해 수능이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이 지원한 수험생은 50만 4588명으로, 이 중 재수생 등 N수생은 15만 9742명이다. 결시율은 10.6%(5만 3093명)로,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이던 정문성 경인고대 교수는 이날 출제경향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

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라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첫 수능 출제 기조 분석에 나선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에서는 킬러문항이 사라졌으며 문항 자체 난도는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서 대체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비교적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은 물론, 142점으로 변별력이 강화된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약간 더 어려웠다고 EBS 현장교사단은 평가했다. 영어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입시업계도 '킬러문항'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국어와 수학영역 모두 변별력을 고루 갖춘 가운데, 이과생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재까지의 난이도 예상이 맞다면 국어와 수학 모두 일정한 변별력을 확보해 두 영역이 모두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적분과 기하의 비슷하거나 어렵게 출제, 확률과통계는 쉽게 출제돼 선택과목 간 점수 차를 좁힐지는 의문"이라며 "수학에서 현재 출제 패턴으로는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표준점수를 높게 획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과목별 EBS 연계율은 ▲국어 51.1% ▲수학 50% ▲영어 53.3% ▲한 국사 50% 등 전 과목에서 고르게 50% 대를 유지했다.

/이현진 기자 hj@

M-커버스토리

충전 인프라 부족에 정부 보조금도 축소

흔들리는 전기차 시장

올해 9월까지 11만 909대 등록
지난해 동기 대비 2.5% 줄어
전국 충전기 24.3만기 불과해
1기당 2대 사용, 지방 더 취약
비싼가격에 지원은 줄어 부담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는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같은 성장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은 수요가 갈수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정부 지원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심각'...충전·가격 등 부담 확대

16일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시장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966만 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4%(708만 6000대)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전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률 61.3%에 비하면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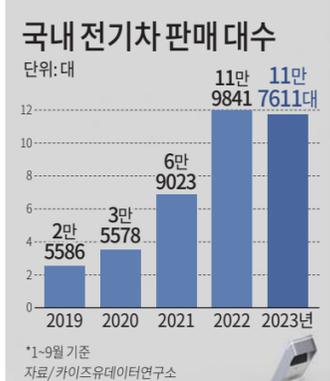
올해 9월까지 국내 등록된 전기차는 11만 909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11만 3702대) 감소했다. 반면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국산 승용차 판매는 8.2% 증가하며 전기차 시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같은 문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높은 가격과 정부 지원금 축소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50만대를 넘어섰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66%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해외에선 자신의 차고에서 충전할



/유투이미지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 인프라 구축에 부담이 적지만 10년이 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 시점에 들어올 수 있는 전력량을 적용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3000여기로 단순 계산하면 1기당 2대의 전기차 사용되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 급속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도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은 급속 충전기 1기로 31.7대, 부산은 33.8대가 나눠쓰고 있는 등 지방이 전국 평균(18.9대)에 비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다.

또다른 문제는 결제수단이다.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시장 구축하면서 다양한 충전 사업자들이 합류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충전소마다 할인 비율이나 결제방식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

비싼 전기차 가격과 정부 보조금 축소는 시장 위축에 직격탄을 날렸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추위·이사회 열고
만장일치로 단독 후보 선정·의결

지난해 12월 3연임 목전에서 용퇴했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기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으로 돌아온다. 조 회장은 은행권을 대표해 정부와 소통해야 할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내정됐다. **<관련기사 2면>**

16일 은행연합회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제3차 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사원총회에 단독 추천했다.



회추위에서는 롤리스트(잠정 후보군)로 꼽힌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롤리스트에는 ▲박진희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이름을 올렸다.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포함됐으나 고사 의사를 전달하면서 최종 5명의 후보가 경합했다.

이사회는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을 제15대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선정

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이사회는 조용병 후보자를 금융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은 오는 27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23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조 내정자의 회장 선임이 확정되면 조 내정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승용 기자 lsv266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미래세대 혁신연구 도전 위해 R&D 정책 바꾸는 중" /사진 뉴시스
▲대통령실, 인요한 '尹측 신호' 언급에 "그런 것 없었다"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2년째 자택 안치 전두환, 북한땅 보이는 파주 장산리에 묻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르나... 대통령 언급에 권익위 본격 검토
▲여당, 김포시 서울 편입 원포인트 특별법 발의 /사진 뉴시스

고위급 군사대화 재개 합의... “가장 생산적·건설적 논의”

美中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샌마테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軍) 고위급 대화에 다시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한 부분은 논란거리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4시간여의 회담 직후 열린 단독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미·중 간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했던 것 중 가장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시 주석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는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시 주석의 참석 없이 바이든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고위급 군사대화 재개가 합의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대화 재개를 촉구해 왔으나,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탓하며 미국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대화가 중단됐던 상황은 염려스러웠고 오해·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군대군 소통 재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직접적이고 개방적이며 명확한 대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이롤리 에스테이트 내 정원을 걸으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방위정책조정회의 등 다시 열기로 한반도 완전한비핵화 약속 재확인

대만 문제 관련 미중 입장차 여전 바이든 ‘시진핑, 독재자’ 발언 논란

화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미·중 방위정책조정회의 및 미·중 해상군사협회의 관련 회의도 다시 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위급 간 부 간 전화통화도 재개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백악관은 “(회담에서) 대통령은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

를 비롯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평화·안정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대만의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또 향후 몇 년 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양안(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미국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펜타닐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 마약을 포함한 국제 불법 마약 제조와 밀매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이 독재자인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독재자) 맞지 않나”라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

재자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공개적인 정치 도발”이라며 미국을 비난한 바 있다.

한편 백악관은 두 정상은 정부 대화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응하고 AI 안전을 증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AI 및 반도체 부문 투자를 제한해 왔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미국이 안보라는 미명하에 시행한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등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세계경제 성장위해 ‘연결성’ 가속화해야”

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공급망 리스크, 아태국가에 위협 선제적·체계적 대응 함께 고민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APEC 내 ▲교역·투자·공급망 연결성 강화 ▲디지털 상호연결성 강화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 등 3가지 해법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의장국인 미국의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비즈니스포럼이다. 이번 APEC CEO 서밋에는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 경제는 또한 한 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연결의 힘은 약화되고 곳곳에서 분절의 힘이 세력을 얻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심화되는 기술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리스크는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발전해 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역·투자·공급망 연결성 강화와 관련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의 문제이고, 기업 차원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역내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AP

EC 회원국과 역내 기업들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APEC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상호 연결성 강화에 대해서는 “세계는 지금 산업혁명과 정보화혁명을 지나 디지털 심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디지털 심화 시대는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이라며 “국가들 넘나들며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국가 간에 디지털 격차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UN과 함께 APEC은 이러한 디지털 규범을 논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태 경제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연결성을 유지하려면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APEC 내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한일 간 청년교류 프로그램, ABTC(APEC기업인여행카드) 등 우리 정부의 APEC 역내 인적교류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은행권 안정화·신뢰회복 최우선 과제

차기 은행연합회장 조용병 내정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책임자”

국내 은행권을 대표해 정부와 소통해야 할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조용병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내정됐다. 조용병 내정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을 안정화 시키고, 고객들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제3차 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사원총회에 단독 추천했다.

회추위에서는 롱리스트(잠정 후보군)로 꼽힌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조용병 차기 회장에 대해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차기 회장 롱리스트에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이름을 올렸다.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포함됐으나 고사 의사를 전달하면서 최종 5명의 후보가 경합했다.

이사회는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을

제15대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선정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용병 내정자가 취임 후 풀어나가야 될 과제는 산더미다.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다. 최근 은행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그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은행권은 정부로부터 ‘은행 종노릇’, ‘돈잔치’, ‘상생금융’ 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가 먼저 상생금융 계획을 밝혔지만 내용이 부족하던 질타를 받았고,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 간 담화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은행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황제세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황제세 추진은 힘들지만 은행권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다.

은행권과 정부 간 긴장도가 높아지며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1957년생인 조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인사·기획부장과 뉴욕 지점장, 글로벌사업그룹 전무, 영업추진그룹 부회장 등을 거쳤다. 신한BNP파리바자 산운용 사장, 신한은행장을 역임한 뒤 신한금융 회장에 올랐고 지난해 12월 옹퇴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성남시 판교도서관 전기차 충전구역.

가격 낮춰 보급형 만들고 완·급속 충전기 늘린다

>> 1면 '충전 인프라 부족에'서 계속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차량 가격을 비교하면 평균 500만원 이상 증가한 반면 정부는 보급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줄였다.

서울 기준 중앙·지방정부 합산 보조금은 1350만원에서 980만원으로 감소했다. 차량 가격 인상과 정부 보조금 축소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기차 모델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1000만원 정도 늘어난 셈이다.

“탄소배출 감소위해 전동화 필수 지속적 혁신 통해 경쟁력 높여야”

전기차 성장세 정체엔 충전불편 높은 가격·화재 우려 등 잇따라

이처럼 전기차 시장 수요가 둔화되면 서 중고차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중고차 가격 인자 속도는 내연기관차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케이카에 따르면 11월 중고 전기차 시세는 전월 대비 최대 8% 하락했다. 케이카는 “중고차는 특성상 매달 1% 안팎의 감가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인데 중고 전기차는 평균 이상의 감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 여전히 성장기조… 정부·기업 팔걸어

자동차 업계는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위축됐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우명호 세계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은 “현재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기차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탄소중립은 전기차라는 솔루션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배출의 78%가 육상 수단에서 발생한다”며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전동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기차 시장이 잠시 어렵다고 회피한다면 미래에는 경쟁력을 더욱 상실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기차 성장 정체는 인프라 부족에 따른 충전의 불편함, 여전히 높은 가격, 화재 우려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은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완성차 업계는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는 한편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달 ‘2023 기아 EV데이’를 개최하고 향후 출시할 보급형 전기차 제품을 공개했다. 기아는 준중형 전동화 SUV 더 기아 EV5를 소개했으며

소형 전기차인 EV3(SUV)와 EV4(세단)의 콘셉트카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EV3와 EV4는 내년, EV5는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2만5000~5만달러(약 4700만~6700만원) 사이로 출시될 전망이다. 가장 저렴한 EV3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3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KG모빌리티도 3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중형 SUV 토레스 EVX를 출시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보급형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판매 규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테슬라는 2만달러(약 2700만원)대 중소형 전기차 모델2를 개발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향후 출시될 소형 SUV 전기차 ID.2올 콘셉트카를 공개하며 가격이 2만5000유로(약 3600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GM은 중형 SUV 전기차 이쿼녹스 EV를 3000만원대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이 전기차 상승세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판단하고 충전기 보급에 속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충전기 설치 대수를 59만기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생활 거점인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 충전을 각각 43만기와 3만기까지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급속 충전을 2만5000기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신속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도 5%에서 2025년까지 10%로 높일 계획이다. 2030년까지 누적 123만기 설치를 목표로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한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휴게소당 3.7기, 전체 800여기에 그치는 충전을 휴게소당 9.5기, 총 2000기까지 확대한다.

정부, 충전인프라 부족에 보급 속도 2025년까지 충전기 59만기 설치

기업, 준중형 등 보급화 모델 출시 글로벌 완성차도 판매 규모 확대

주유소에 설치되는 충전기도 현재 600기에서 1800기로 세 배 늘리고 전체 주유소의 2.7%에 그치는 보급률을 7%까지 끌어올린다. 환경부는 충전 속도를 중요시하는 전기차주들의 성향을 고려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사업을 내년까지만 이어간 뒤 2025년부터는 급속 충전기에 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전기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 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충전 68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29% ↓... 엄격한 규제, 완화 시급

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 제5차 포럼
전세계 첨단재생의료 연 23% 성장
2032년 산업 규모 235조 이룰 것
업체수 53% ↑, 임상시험은 29% ↓
경제불황·투자 위축, 자금조달 난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5차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책임질 미래 헬스케어의 핵심,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상업화를 앞당기기 위해선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3년이 지났지만 경제불황과 투자 위축 등으로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탓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5차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 모인 바이오·제약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과 '글로벌화'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한 임상시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

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기관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 세계 첨단재생의료 산업은 최근 연평균 22.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오는 2032년에는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규모가 2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1분기 미국, 유럽, 아시아의 첨단재생의료 분야 산업체 수는 총 2760개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반면 임상시험 수는 1687개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진 지씨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임상시험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경제 불황과 투자 위축이 겹쳐 자금 조달

의 어려움으로 임상 개발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CTO는 첨단재생의료 개발자 입장에서 애로 사항으로 ▲엄격한 규제 환경과 긴 심사 기간 ▲기술적 도전과 재생의료 제품의 표준화 문제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임상시험의 신속 진입과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새로운 기술이 신속하게 임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내 사업화를 기반으로 하는 '선 국내개발 후 해외개발'이라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폐암, 대장암, 간암, 위암 등 고형암에서 유효한 CAR-T 기술이나 세포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국내 개발은 뒤쳐진 상황이다. 김 대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시급한 개발이 전 세계 시장에서 K바이오가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큐로셀은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CAR-T 임상을 개시한 바 있다. 오는 2024년에는 국내 첫 CAR-T 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도 "줄기세포를 비롯해 선두 주자였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건 뼈 아픈 현실"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되거나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질 때 연구와 상업화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이 규정되어야 한다"며 "특히 연구용 임상연구 결과를 허가용 임상시 안전성 데이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역시 임상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주문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연구자 임상연구는 상업적 임상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도 낮고 비용도 적게 든다. 학문적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강형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첨생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규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연구에 머물지 않고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사업화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이 세계 시장을 개척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국내 취업자 10명 중 1명,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 높다”

한은 'AI와 노동시장 변화'

AI 대체 가능성 큰 일자리 341만개
일반의사 등 고소득·고학력 비중 ↑
산업용 로봇 노출 일자리 감소폭 커



유도 이미지

우리나라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이다. AI가 잘하는 비반복적·분석적 업무를 주로하는 직업일수록 고용이 줄고,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AI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중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41만개로 전체 일자리

의 12%를 차지했다.

AI로 대체되는 일자리는 산업용 로봇이 활성화되던 시기와 달리 고소득·고학력의 비중이 높았다. 직업 세분류로 살펴보면 일반의사와 전문의사, 회계사, 자산운용사, 변호사 등이다.

오삼일 조사국 고용분석팀 팀장은 "AI의 경우 주로 비반복적·인지적(분석)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업무가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AI노출지수)에 따라 대체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AI기술이 제한적으로 사

용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0년간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변화된 노동시장을 보고 유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 노출지수가 10퍼센타일(Percentile) 높을수록 고용비중이 12%포인트(p) 감소하고, 임금상승률은 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로봇에 더 노출된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 고용감소폭이 크다는 분석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노출지수가 10퍼센타일 높을수록 고용비중은 7%p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은 2%p 낮아졌다. 고

용비중과 임금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산업용 로봇보다는 영향이 작다.

오 팀장은 "소프트웨어가 AI기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AI 기술 또한 도입될 경우 대체가능성이 큰 일자리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 팀장은 AI기술로 대체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AI기술로 생성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팀장은 "AI기술이 도입되면 근로자들에게는 다른 능력이 요구될 것"이라며 "AI기술이 반복적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인지적 업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배달·순찰하는 로봇 나온다...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개정 '지능형로봇법' 오늘부터 시행
안전인증 받은 로봇 보행자 지위 부여
의무보험 가입, 법규 위반시 범칙금



안전인증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부착되는 안전인증 표시 /산업통상자원부

도보나 횡단보도를 걷는 배달 로봇이나 순찰 로봇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동로봇은 사람처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고, 로봇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동로봇이 법규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범칙금도 부과된다. 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도 새로 생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보험(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용 보험 상품은 로봇산업협회와 민간보험사가 개발을 진행 중이다, 12월 중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지능형로봇법이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는 15

km/h 이하, 폭 800mm 미만(보도 폭 2500mm 이상일 경우 1200mm까지 허용)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시험 항목 중에는 비상정지 기능과 비상정지 중 임의 동작 여부, 장애물 감지와 감속·정지·회피,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이행 여부, 원격 정지수단 보유 여부 등도 포함되며, 겹모양에 날카로운 형상은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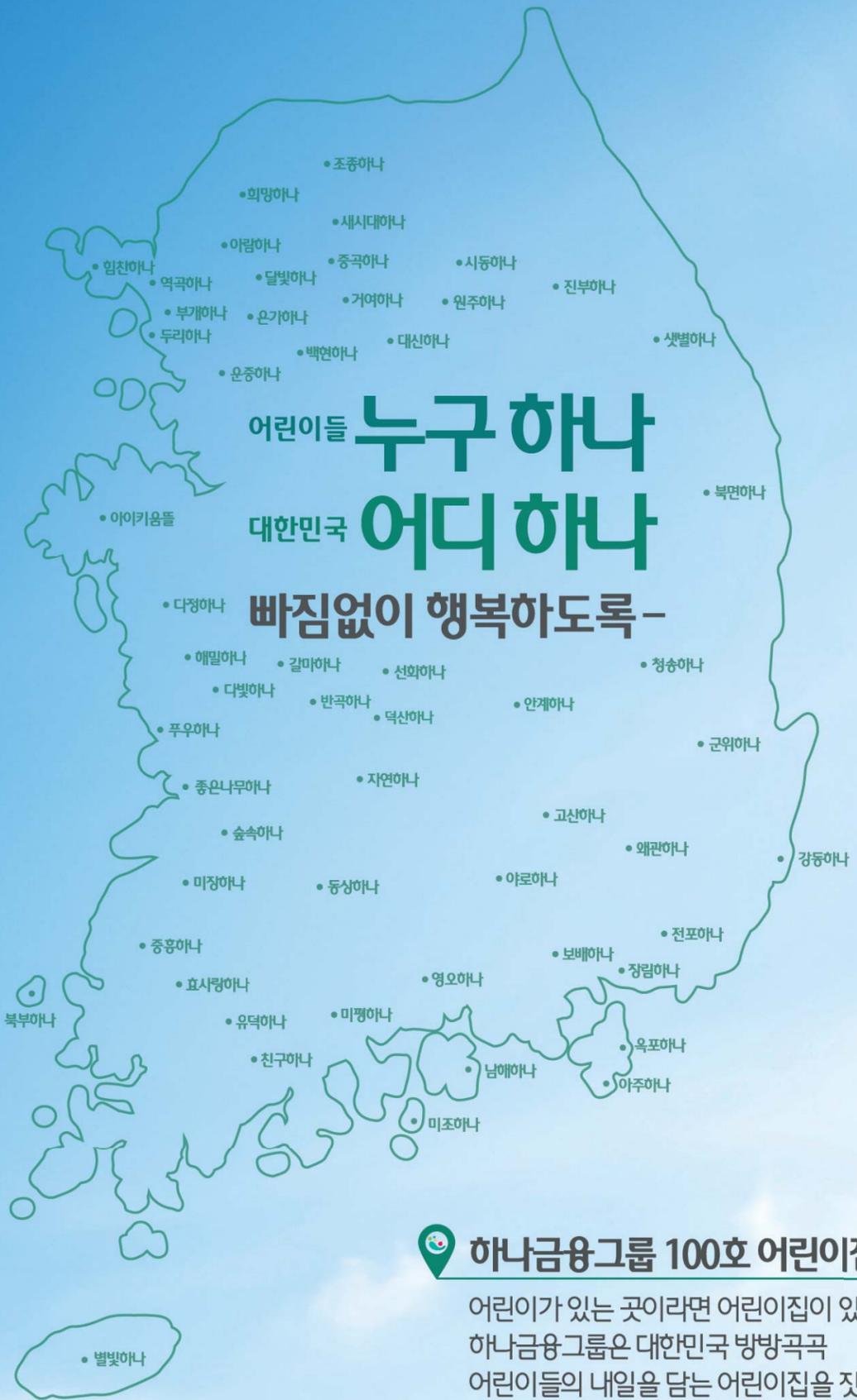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

되는 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1월 이내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험특례를 진행 중인 14개사 가운데 2개사가 올해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당정 “대차거래 상환 90일·대주담보 비율 105%로 일원화”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 개인 투자자에 유리한 요건 조성 기관 투자자 내부 통제기준 의무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완전 차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차별적 조건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투자 주체와 관계없이 공매도 상환 기간은 90일로 하고,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은 105%로 일원화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추후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극 검토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 및 엄벌 방침도 정했다. 유 의장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 조사하기로 했다”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시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함께 공매도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했다.

유 의장은 “공매도 관련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미 투자자들은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무 담당 거래소, 금감원 등이 관련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TF를 운영해가면서 투자자 얘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6월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장은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걸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의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걱정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당연히 엄벌할 테고 체크를 할 계획”이라며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한 이후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관련 IB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3~4개사 정도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서 조사 중에 있다”며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와 관련된 것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11월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보험료율 4%·6%인상” 등 2가지 안 제안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1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2안 15%·40%... 고갈시점 16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목표로 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이날 여야 모두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추상적’ ‘맹탕’이라고 질타했고, 정부와 민간자문위 사이 이견도 노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한다고 했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는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백지로 던져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민간자문위 보고서는 소득보장을 위한 ‘보험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담긴 1안과 재정안정위해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로 하는 2안이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5%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1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되고, 2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

민간자문위의 보고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해 비판을 받은 ‘추상적’인 대안에 비해 쟁점을 좁혔다는 평가를 받지만,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에 집중하느라 정작 핵심인 구조 개혁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개혁 방향 우선순위를 놓고 정부와 민간자문위의 이견도 드러났다. 정부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간자문위는 최종보고서에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그제내 삶의 앞으로 어떤 체감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인지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했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고 목표를 뭘로 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니 까 일각에서 ‘맹탕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총선후보자 엄격·철저 검증

당 사활 걸려... 가상자산 등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강화 등 정밀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총선이 여느 선거보다도 당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판단해 가상자산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엄격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병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16일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위원회 임무는 공정하고 단호한 검증을 통해 최정예 후보자들을 엄선해 공관위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과거 그 어떤 선거보다도 엄격,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께서 후보자 검증에 부담을 안느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부담을 극복하고 검증에만 최선을

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검증에 따른 모든 책임 오로지 제가 지겠다. 훌륭한 위원들과 함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신청자 공모는 12월 초까지 1차 받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검증에 예외가 어디있나”라며 “앞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주요 검증대상으로 언급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거기에도 불법적 내용이 있지 않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큼의 탈법, 불법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지 가상자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尹,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법원장 지명

대전고등법원장 등 거치며 원칙 충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박정익 기자



MONTES ALPHA

A TOUCH OF GRACE

나의 첫 와인 몬테스 알파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삼성·메리츠화재 '웃고', DB·KB·현대해상 '체면 유지'

국내 5대 손보사 3분기 실적 희비

삼성화재, 당기순이익 27% 증가
메리츠 누적순익 1.3조, 2위로 꺾춤

DB손보 누적순익 전년비 8% 줄고
KB손보·현대해상도 순익 감소

국내 5대 손해보험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희비가 나뉘고 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쾌재를 불렀지만 나머지 손보사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메리츠화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보험계약마진(CSM) 증가로 체면을 살렸다.

삼성화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1조646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967억원) 대비 26.9%



삼성화재 본사 전경. /삼성화재

(349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세전이익(2조2204억원)도 전년(1조7650원) 대비 25.8% 늘었다.

특히 3분기 누적 장기보험순익은 1조3004억원으로 전년(1조204억원) 대비

27.4%(약 2800억원) 상승해 실적을 견인했다.

3분기 신계약 CSM은 신상품 출시, 포트폴리오 개선 중심의 전략으로 1조1642억원을 기록했고 누적 신계약 CSM은 2조6068억원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2위였던 DB손해보험을 추월했다. 메리츠화재는 3분기까지 1조3353억원의 순익을 거둬 삼성화재에 이어 누적 순익 2위를 차지했다. 전년(1조542억원) 대비 26.7%(약 2811억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D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순익은 1조2620억원으로 전년(1조3750억원) 대비 8%(약 1130억원) 감소해 메리츠화재에 2위 자리를 내줬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역시 순익 감소를 피해가지 못했다. K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순익은 6803억원으로 전년(6999억원) 대비 2.8%(약 200억원) 감소했다. 현대해상은 전년(8550억원) 대비 8%(약 700억원) 감소한 7864억원

의 3분기 누적 순익을 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통일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일시적 요인 등으로 순익이 감소했다는 평가다.

다만, IFRS17 도입 후 보험사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CSM은 성장했다. CSM을 일정 비율로 상각해 보험영업이익으로 인식하는 IFRS17 특성상 CSM 성장은 미래영업이익 증가를 의미한다.

DB손해보험의 3분기 CSM은 12조6000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전분기(12조2000억원) 대비 약 4000억원 늘었다.

KB손해보험의 3분기 CSM은 9조1840억원으로 지난 2분기(8조5400억) 대비 14%(약 1조1300억원) 증가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체 장기인(人)보험 MS(시장점유율) 자체가 2분기 때보다 많이 올라서 CSM도 많이 성장했다"며 "CSM 증가를 봤을 때 안정

적인 이익으로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도 전분기(8조5600억원) 대비 약 3070억원 상승한 8조8670억원의 CSM을 기록했다. 장기보험 CSM 상각 수익 증가와 일반·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현대해상의 올해 3분기 CSM 상각 수익(2209억원)은 전년 동기(1760억원) 대비 25.5%(약 450억원) 증가해 성장세를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외부회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부분 이외에 CSM 성장에 따른 이익 체력 비교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가이드라인 도입 영향이 컸다. 전진법 적용으로 보험사들은 실적에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며 "CSM 성장으로 체력적인 부분은 더 좋아하는데 외부적 영향으로 실적 악화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사회 초년생 첫 금융 '파킹통장·자유적금' 제격

파킹통장, 금리 양호·입출금 자유
자유적금, 적립액 자유·높은 금리

'예비 사회 초년생'에게 '파킹통장'과 '자유적금'이 '생애 첫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킹통장은 양호한 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을, 자유적금은 자유로운 적립액과 높은 금리가 특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비 사회 초년생'인 수능 수험생을 겨냥해 청년 특판 대상 연령 확대, 금융 겸용 학생증 개선, 급여 계좌 개설 이벤트 등 '예비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상품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예비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상품을 쏟아내는 가운데, 지방은행·외국계 은행이 취급을 늘린 '파킹통장', 인터넷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자유적금'이 예비 사회 초년생을 위한 생애 첫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킹통장'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연 최대 1%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만큼 소액 경제 활동이 잦은 사회 초년생에게 유리하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지만, 지방은행·외국계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시중은행 영업점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기기. /뉴시스

도 '파킹통장'형 상품 취급을 늘렸다.

전북은행의 '씨드모아 통장'은 연 최대 3.6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2.95%이며, 올해 가입 고객에게는 6개월간 0.7%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전북은행과 거래 내역이 없는 신규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의 '제일EZ통장'은 연 최대 3.6%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2.6%이며, SC제일은행과 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가입 시 6개월간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00만원 이하의 초과예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동 이자율을 적용한다.

BNK부산은행의 '마!이통장'은 연 최대 1.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100만원 이하의 예치금액에 대해 1.4%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만 14세~만 39세의 개

인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자유적금' 상품은 최대 적립액 한도는 정해져있지만, 납입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적금 상품이다. 수입이 불안정한 예비 사회초년생들에게 적합한 저축 수단이다.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은 연 최대 4.4%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4.3%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금리를 차등 제공한다. 월 적립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다.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연 최대 4.2%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4.0%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금리를 차등 제공한다.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액을 납입할 경우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월 적립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예전처럼 수험생 특판을 내놓지는 않지만, 청년 대상 상품에 청소년을 포함하거나 사회초년생의 접근이 쉬운 비대면 전용 상품을 늘리고 있다"며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혜택이나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 상품보다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특화 신기술 개발

바닥차음·모듈러 난방 급탕 시스템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시스템'과 '모듈러 난방 급탕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슬래브 신규(新舊) 접합부 연결 기술을 시작으로, 올해 LG

전자와 '리모델링 맞춤형 가전제품', 포스코 특수강건축 구조시스템'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시스템'과 '모듈러 난방 급탕시스템'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바닥 차음시스템'을 적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차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모듈러형 난방 급탕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난방 급탕 통합열교환기와 연결 배관의 모듈화로 공장에서 조립해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설치 면적을 최적화해 고객에게 추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 품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

대면편취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경찰청이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3244건에서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계좌간 송금·이체된 경우만 구제가 가능해 대면편취형의 경우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지급정지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경찰청이 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검거하면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경위등을 파악해 서면으로 피해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30영업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이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전산개발,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했다"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에코플랜트, CES 혁신상 2건 수상

환경·건설 역량 시너지 글로벌 무대 인정

SK에코플랜트의 환경·건설 역량 시너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16일 폐기물 솔루션 '피클(PICKLE)' 및 현장 안전관리 플랫폼 '안심(안전에 진심)'이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4'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전시에 앞서 전 세계 혁신 기술 상품을 접수, 평가해 기술·디자인 등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에 혁신상을 수여한다.

피클은 지속가능성, 친환경 디자인&스마트에너지(Sustainability, Eco-Design & Smart Energy) 부문에서, 안심은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분야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K에코플랜트의 '안심' 및 '피클' 로고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상작 2건 모두 신사업과 기존사업 간 역량이 집약된 플랫폼으로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지나해와 올해 CES 혁신상 수상은 SK에코플랜트의 환경과 건설 두사업의 조화로 탄생한 서비스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디지털 기술은 환경사업과 기존 건설사업을 연결하기 위한 SK에코플랜트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타이어업계, 전기차 타고 실적 고속질주... 4분기도 '드라이브'

한국타이어 3분기 영업익 106% ↑
'아이온' 세계절용 등 폴 라인업
금호타이어 영업익 4045% 급증
EV6·ID.4 크로즈 등에 공급 중
넥센타이어 영업익 697억 6215% ↑
아이오닉6에 신차용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 크루젠 EV HP71



한국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SUV 장착 차량

국내 타이어업계가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인치·전기차 타이어 등의 판매 상승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지난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이 올해 호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와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고품질 타이어 판매도 늘어난 덕분이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3분기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 매출 2조 3401억원, 영업이익 396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106%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16.9%로 1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0.2%에서 각각 9.8%,

10.1%로 급증했다. 매출이 정체하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역대급으로 급증한 덕분이다. 금호타이어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962억원으로 전년대비 4045.6% 늘었고 순이익도 33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넥센타이어도 6215% 급증한 6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과 슈퍼카 브랜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집중, 코로나19 당시 급등했던 물류비가 안정화되면서 원가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타이어는 올 3분기 18인치 이상 고인치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이 43.4%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타이어업계는 고부가가치 타

이어 글로벌 시장에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세계 최초로 세계절용, 퍼포먼스용, 겨울용 타이어까지 전기차 전용 폴 라인업을 구축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로 아이온(iON)이다. 아이온의 특별함은 설계 단계부터 하이 퍼포먼스 프리미엄 전기차를 타깃으로 연구 개발됐다. 순수 전기 스포츠카와 같은 고툭력 전기차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준다. 2022년 5월 유럽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이후, 같은 해 9월과 12월에 각각 국내와 미국 시장에 출시했다. 올해 5월에는 중국 시장에도 선보였다. 현대차 아이오닉 6를 비롯해

아우디 Q4 e-트론, BMW 그란쿠페 i4, 포르쉐 타이칸, 테슬라 모델Y·모델3 등에 신차용 전기차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선점을 위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와 슈퍼카 브랜드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해 2026년까지 15억 7500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의 '마제스티9 EV SOLUS TA91'와 '크루젠 EV HP71'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마제스티9 EV SOLUS TA91과 크루젠 EV HP71은 전기차 특성에 맞게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주행성능, 승차감까지

고려한 금호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이다. 특히 두 제품 모두 금호타이어 스테디셀러 제품을 기반으로 첨단 EV 기술이 집약된 것이 특징이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기아 EV6를 비롯해 폭스바겐의 'ID.4 크로즈' 차량에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베트남공장 증설과 광주공장 이전 및 신공장 설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아이오닉 6에 신차용 타이어 2개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BMW iX1에도 신차용 전기차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타이어 판매 확대와 해상운임 안정화 등으로 올 4분기 수익성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고무·카본블랙 등 원자재 가격과 해상운임비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외부 요인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며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된 고인치·고성능 전기차 타이어의 판매 증가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실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타이어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변동이 심한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작전성능 발전... K-잠수함 수출 박차”

한화오션, K-잠수함 수출전망
“해외국가서 장보고함등에 관심
캐나다·폴란드 등에 선제적 영업”

한화오션이 K-잠수함 수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대한해군협회 개최 '대한민국 해군 창설 78주년 기념 제7회 안보세미나'에서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의 장점·성과와 K-잠수함 수출전망에 대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화오션은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다수의 해외국가들이 한화오션에서 건조되고 있는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한화오션은 글로벌 안보 수요를 파악하고, 캐나다·

폴란드·필리핀 등에서 선제적으로 K-잠수함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화오션이 건조 중인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은 장보고III 배치-I '도산안장호함'보다 작전 성능과 잠항 시간이 발전된 디젤 잠수함 모델이다. 배수량과 잠수함 길이를 늘렸고, 수직 발사관 등 무장 체계를 강화했다. 연료전지 체계, 말굽형 소나, 관통형 공격 잠망경 등 주요 핵심 장비도 늘렸다.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은 잠항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한 추진체계가 적용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디젤 추진 잠수함이다. 기존 납축전지를 장착한 장보고III 배치-I보다 잠

항 시간이 3배 이상 늘었다. 또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 플랫폼 및 주요 장비의 80%를 국산화하며 안정적인 국내 기자재 공급망을 구축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세계 8번째로 잠수함을 독자 설계 개발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 플랫폼 및 주요 장비의 80%를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각 국가마다 상이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잠수함 설계 변경과 건조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해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라며 “대한민국 200여 부품회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잠수함 유지보수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라고도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전자, 내년 美에 전기차충전기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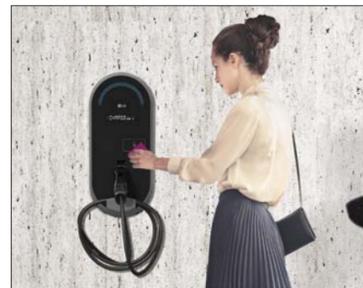
상반기 완속·급속 2종 출시 후
하반기 급속충전기 라인업 확대

LG전자 전기차 충전기가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LG전자는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LG전자는 상반기에 11kW급 완속충전기와 175kW급 급속충전기 등 2종을 먼저 출시한다. 완속충전기는 자유롭게 설치하고 전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출력을 제어해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하고, 급속충전기는 CCS1과 NACS 충전 방식 모두를 지원해 다양한 전기차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LG전자는 하반기에 상업용과 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급속 충전기 라인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고객 요구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LG전자

에 대응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2018년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선형 개발을 시작으로 2022년 핵심 기술 기업인 애플망고를 인수하며 충전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을 내재화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조주완 사장이 미래비전을 발표하면서 “전기화”를 주목할 변곡점으로 꼽은 바 있다. B2B와 신사업 성장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juk@

HD현대, 2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

레이저보트 자율운항솔루션 등 3개 제품

HD현대가 2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인류의 미래를 바꿀 차세대 혁신 기술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HD현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CES 2024 혁신상(Innovation Awards)' 발표에서 센서 융합 기반 굴착기 충돌 방지 시스템, 건설기계용 AI 기반 머신 어시스턴스, 레이저보트 자율운항 솔루션 등 총 3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개최를 앞두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인 기업의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HD현대는 지난 'CES 2023'에서도 총 9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CES 혁신상을 받은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첨단 모빌리티 부문과 이동식 디바이스 부문에서 수상작을 배출했다.

'센서 융합 굴착기 충돌 방지 시스템'은 굴착기 주변의 사람을 감지해 자

동으로 정지함으로써 장비와 작업자 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카메라와 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한 융합 기술을 활용해 기존 단일 센서 제품보다 장애물 선별 능력과 거리 측정의 정확성을 크게 개선했다. 굴착기, 휠로더, 트럭 등 건설기계 운전자의 장비 속도도 및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기반 머신 어시스턴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HD현대의 무인·전동화 기술력이 담겨있는 제품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지스타에 오디세이 모니터 체험존

네오 G9·OLED G9 등 체험기회

삼성전자 오디세이 모니터가 게이머들을 찾아갔다.

삼성전자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에 오디세이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파트너십으로 체험 기회를 크게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게임 파트너사들과 ▲오

디세이 네오 G9 ▲오디세이 OLED G9 ▲오디세이 아크 2세대를 비롯해 ▲오디세이 네오 G8 ▲오디세이 G7 ▲오디세이 G6 ▲오디세이 G5 등 다양한 게이밍 모니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게임사인 구글플레이·넷마블·위메이드·스마일게이트 등 주요 게임사 부스에서 각각의 게임 장르에 적합한 오디세이 모니터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김재용 기자

TV부터 모바일까지... 삼성·LG, 신기술로 혁신상 휩쓸었다

CES 2024

삼성 최고혁신상 포함 28개 수상 갤럭시Z폴드5, 엑시노스 등 받아

LG 33개로 지난해 이어 '역대최대' 올레드 TV 12년 연속 혁신상 차지

내년 CES 2024도 삼성·LG가 주도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2024를 앞두고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CES 혁신상에서 다수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고혁신상 3개를 포함해 28개, LG전자는 최고혁신상 2개와 함께 역대 최다 기록인 33개를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에서만 최고 혁신상 3개를 받았다. 게이밍 TV와 스마트홈 서비스로, 내년 CES2024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영상디스플레이 부문 14개와 함께 생활가전 8개, 모바일 5개 등 부문에서 혁신상에 올랐다. 갤럭시Z폴드5를 비롯해 스마트싱스 에너지와 삼성 푸드, 미세플라스틱 저감 필터 등으로 새로운 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반도체 부문 임베디드 기술에서도 UWB(초광대역) 솔루션인 엑시노스 커넥트가 혁신상에 포함됐다.

LG전자는 변치 않는 올레드 TV 인기에 더해 신기술까지도 혁신상에 이름



삼성전자가 CES2024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

을 올리며 지난해 (28개) 기록을 뛰어넘은 역대 최다인 33개 혁신상을 받았다.

올레드 TV는 2013년 출시 이후 12년 연속으로 혁신상을 차지했으며, LG전자가 받은 최고혁신상 2개 역시 올레드 TV 부문에서 나왔다. ▲게이밍&e스포츠 ▲영상디스플레이 ▲영상·화질처리 ▲AV부품&액세서리 ▲내장기술 등 5개 부문에서 12개 혁신상이 올레드 TV에 수여됐다.

스마트 TV 플랫폼 WebOS도 혁신상에 4개나 랭크됐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등 3개 부문에서다.

포터블스크린 LG 스탠바이미Go도 인정받았다. ▲모바일 디바이스 ▲액세서리&앱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

상했다. 이와 함께 사운드바와 블루투스 스피커 엑스북도 AV부품&액세서리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지난 IFA2023에서 첫 선을 보였던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도 생활가전(Living) 부문 CES 혁신상으로 선정됐다. 보조액세서리 유니버설 업키트도 함께다.

그 밖에 LG전자는 ▲신개념 캡슐커피머신 듀오보 ▲커브드 올레드 패널을 적용한 LG 울트라기어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 ▲주행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킨 LG 클로이 서버봇으로 혁신상을 휩쓸었다.

한편 CES2024는 내년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두산, 첨단 전동화·AI제품 기술력 인정

두산밤켓·두산로보틱스

S7X, 오스카 더 소터 혁신상 선정

두산의 첨단 전동화, 인공지능 제품이 세계적인 혁신기술 경쟁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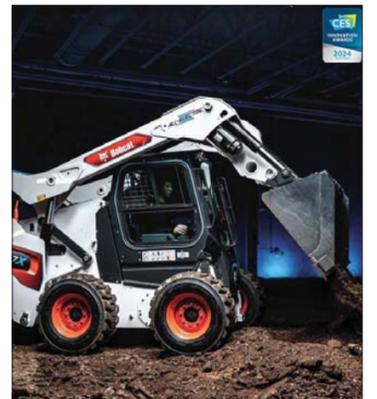
두산은 15일(미국 현지시각) 발표된 'CES 2024 혁신상'에서, 두산밤켓 완전 전동식 스kid 로더 'S7X' 모델과 두산로보틱스 재활용품 분류 솔루션 '오스카 더 소터(Oscar the Sorter)'가 혁신상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개최를 앞두고,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먼저 두산밤켓 'S7X' 모델은 ▲지속가능성, 에코 디자인 및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시티 부문 등 2관왕에 올랐다.

'S7X'는 두산밤켓 대표 제품인 스kid 로더 모델로, 내연기관은 물론 유압시스템까지 '완전 전동식'으로 구현한 친환경 제품이다. 동급 디젤 모델에 비해 부품 개수가 절반에 불과하고, 유압작동유를 비롯한 오일류의 양은 96% 줄어, 관리가 용이하면서도 유지비가 현저하게 낮다. 오염물질 배출은 전혀 없다.

제품 성능도 대폭 향상됐다. 순간 모터 회전력은 동급 디젤 모델 3배에 달한다. 또한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작업 상황에 맞게 출력을 조절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6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휴게 시간을 활용해 충전하면 종일 사용도 가



두산밤켓의 완전 전동식 스kid 로더 'S7X' 모델.

능하다. 소음과 진동도 현저히 줄었다.

인공지능 부문을 수상한 두산로보틱스 '오스카 더 소터'는, 코딩 없이 협동로봇을 손쉽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트 스위트(Dart Suite)'를 기반으로 AI 머신러닝 기술까지 적용한 재활용 분리수거 솔루션이다.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캔 등을 분류하고 내용물을 제거한 뒤, 지정된 휴지통으로 옮긴다.

가격이 비싼 비전 인식기술 없이, 협동로봇 손에 해당하는 '그리퍼'로 물체를 집으면서 강도에 따른 전류값, 크기 등의 차이를 측정하고 인식한다. 생김새가 유사한 물체도 재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도 분류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AI 머신러닝 기술로 물체 모양과 재질을 지속 학습해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한 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향후 물류·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확장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항공업계, 하반기 우수인재 대규모 채용

티웨이항공, 객실승무원 경력직 채용 진에어, 운항승무원 경력직 수시모집

국내 항공업계가 인재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항공기 운항 편수와 여객수가 80% 이상 회복되면서 항공사들은 급증하고 있는 여객 수요 대응을 위해 신규 기재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하반기 공채를 통해 인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4일까지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객실승무원 경력사원 공개 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 내년 항공기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경력직 객실승무원 채용이다.

모집 부문은 객실승무원 5년 이상 경력자로 내년 1월 중 입사와 근무가



국내 항공업계가 올 하반기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티웨이항공

가능해야 한다. 해외여행 및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외국어 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 이번 경력직 객실승무원 모집 근무지는 서울과 청주로 근무지 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서류 접수 마감은 이달 24일 오후 2시까지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

검사 순으로 진행한다. 또 티웨이항공은 이달 내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도 실시하며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신입·경력사원 200여명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입사원 지원 접수는 지난 13일 마감됐으며 경력사원은 이달 20일까지 진행한다. 대한항공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올 들어 2월과 7월 등 2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했으며 지난달에는 B737 및 A320 계열의 항공기 정비 가능한 항공정비사 경력직 공고를 시행했다. 현재는 운항승무원 경력직 수시 채용을 진행하며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왼쪽부터)이이미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이 도심항공교통(UA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SKT, 대구·경북권 UAM 교통망 추진

K-UAM 드림팀, 경상북도와 MOU

SK텔레콤과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대구와 경북권을 잇는 UAM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SK텔레콤은 자사와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경상북도와 도심항공교통(UA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드림팀과 경상북도는 내년 4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경북 UAM 운용 환경을 분석해 상용화 단계별로 경북형

UAM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UAM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이번에 경상북도와도 손을 잡으면서 대구와 경북권을 아우르는 광역 UAM 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운송·관광·공공·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 모델 개발, 전용노선 발굴,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북 지역 기반 기업들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UAM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북 UAM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T, 5G 상용 기지국 오픈 랜 무선장비 연동

오픈랜 장비 간 호환성 향상

KT는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 기지국에 서로 다른 제조사의 오픈랜 무선장비(O-RU)를 연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KT는 오픈랜 기지국을 멀티 벤더로 연동하기 위해 노키

아의 5G 오픈랜 분산장비(O-DU)에 플리드와 에프알텍의 O-RU를 동시에 연결했다. 이번 검증은 KT의 5G 상용망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노키아의 O-DU에 기지국 장비 간에 표준화된 오픈랜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진행했다.

이를 위해 멀티 벤더 장비 간 인터페

이스 연동을 검증하는 상호 호환성 시험, 단말부터 코어까지 단대단 시스템을 구성해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E2E 테스트)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멀티 벤더의 O-RU를 동일한 O-DU에 연동한 것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이다. 같은 제조사의 장비만 사용해왔던 기존과 달리 제조사가 다른 장비도 서로 연동할 수 있어 장비 간 호환성이 높아졌다. /구남영 기자

유가증권시장, 3분기 매출액 늘었지만 영업이익 38% 급감

한국거래소, 올 3분기 결산실적 발표
누적 매출액 2093兆... 0.29% 상승
전기전자 등 14개 업종 영업이익 줄어
누적 순이익 흑자기업 26개社 감소

올해 3분기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의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급감해 사실상 '납는 게 없는 장사'가 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3년 3분기 결산 실적'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12월 결산 상장기업 613개(금융업 등 제외)사의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했다.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0.29% 상승한 2093조648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은 94조6982억원, 순이익은 70조12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7.98%, 41.06%씩 급감했다. 전체 매출액의 9.1%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연결 매출은 2.51%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9.95%, 30.03%씩 감소했다.

(12월 결산법인 2023년 3분기(누적) 결산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개별기준			연결기준		
	2022년 1~9월	2023년 1~9월	증감률	2022년 1~9월	2023년 1~9월	증감률
매출액	11,123,866	10,784,616	△3.05	20,876,878	20,936,486	0.29
영업이익	724,189	268,192	△62.97	1,526,891	946,982	△37.98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861,752	691,722	△19.73	1,568,137	892,251	△43.10
순이익	682,167	685,737	0.52	1,189,684	701,218	△41.06

/한국거래소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기계 등 3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 운수장고업 등 14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줄었다. 또한, 운수장비, 기계 등 5개 업종은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 운수장고업 등 12개 업종은 순이익이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연결부채 비율은 112.46%로 지난해 말 대비 0.27%포인트 감소했다. 613사 중 3분기 누적 순이익 흑자기업은 472사(77.00%)로 전년 동기(498사) 대비 26사 감소했다. 이 중 흑자를 지속한 기업은 427개사로 전체 상장사 중 69.66%

를 차지했다. 흑자로 전환한 기업은 45개사(7.34%)다.

적자기업은 141사(23.00%)로 지난해 동일 기간(115사)보다 26사 늘었다. 이 중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70사로 전체 상장사 중 11.42% 수준이며, 적자 전환 기업은 71사(11.58%)다.

금융업 41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33%, 1.92%씩 증가해 모두 수익성이 개선됐다. 증권·은행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04%, 6.23% 늘었고, 순이익은 14.84%, 9.97%씩 올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상장 앞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올 3분기 영업손실 69억 기록 투자자 '몸값 부풀리기' 우려

광물가격 하락 등에 영업적자
투자설명서에는 2분기 실적만
비싼 공모가에 악재 겹쳐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 기업 파도가 기업공개 당시 공모가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역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 그룹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오는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하반기 마지막 대어로 기대를 모았으나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데다 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상장을 앞두고 부담을 안게 됐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난 14일 올 3분기 매출이 2400억원, 영업손실이 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전 상반기까지 155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1개 분기 만에 7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적 공개 이후 김병훈 대표는 주주서한을 통해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분기 영업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광물 가격 하락, 원자재 채고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공모 투자설명서에는 2분기 실적만 나와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난 8~9일 진행된 일반청약이 끝난 다음에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며 이례적인 대표의 주주서한은 파도 시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면피성 발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IPO 과정에서 사업 성격이 다른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은 점도 논란이 됐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비교기업으로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그리고 중국의 CNGR 등을 선정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양극재 업체로, 전구체 생산 사업을 영위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양극재 기업 위주로 비교 그룹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높게 제시했다.

이에 따라 3만6200원으로 결정된 현재 공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경준 혁신 IB자산 운용 대표는 "일부 기관투자자가 주관사로부터 공모가 3만원을 유력한 가격으로 안내받았고, 이후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3만원이 확정 공모가라는 소문이 퍼져 대부분이 3만원에 수요예측 참여했는데, 공모도 금지 발표로 기존 그룹주들의 주가가 급등하자, 확정 공모가를 상향 조정했다"며 "공모가가 원래도 비싼 것으로 평가받아 흥행에 실패하였는데 회사의 적자 전환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파도에 이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역시 몸값 부풀리기 논란이 일어나면서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공동주관사 NH투자증권도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

와이바이오로직스, 기술이전·신규 후보물질 발굴 '박차'

내달 상장... 총 150만주 공모

다음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와이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통해 파이프라인 기술이전과 신규 후보물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상장 이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2007년 설립된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다.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국내외 파트너사와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을 공동개발한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상장에서 총 15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 예정가는 9000원~1만1000원으로, 최대 16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10~16일까지 기관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오는 23~24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일은 12월 5일이다.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풋



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각자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이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회사측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인 경우 풋백옵션이 의무는 아니나,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권리기간도 6개월을 제시했다"며 "상장 후 주가 흐름에도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은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은 완전인간항체 라이브러리 '와이맥스(Ymax)'-ABL'

이 핵심인 항체 발굴 기술과 T-세포 이중항체 플랫폼 '앨리스(ALiCE)'가 주축이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최근 다국가 임상 1·2a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항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아크리솔리담(YBL-006)'과 T-세포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YBL-013', 단일클론항체 'AR062' 등이 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계기로 기존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과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5건의 기술이전을 성사했고, 12건의 공동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와 중국 3D메디슨에 각각 신규 단일항체와 이중항체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했다.

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각자대표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의 핵심요소인 우수한 항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겠다"며 "지속적인 기술이전과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는 항체 신약 전문기업의 모델이 되겠다"라고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인증포럼' 개최

TCFD 권고안 지침서 강독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21일에 '제7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TCFD 권고안 이행 및 비금융 기업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지침서 강독회'로 개최된다. 박경상 한영회계법인파트너와 허규만 안진회계법인파트너, 심재경 삼일회계법인파트너,

정재욱 삼정회계법인파트너가 발표를 맡아 지침의 주요 내용을 참가자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포럼은 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사전신청은 마감됐으며, 추후 해당 영상을 회계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김영식 회장은 "ISSB에서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및 미국 증권거래소(SEC)의 기후 공시 규정안에서 TCFD 권고안의 요구사항들을 준용하고 있어 TCFD 권고안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본 회에서는 TCFD 권고안의 적용을 위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두 지침서의 공식 한글번역을 제공하고 강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공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국거래소, 유럽 우량기업 상장유치 활동

보건산업진흥원-IPO 전문기관과 진행
상장절차·준비사항 맞춤형 컨설팅

한국거래소는 유럽(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지역에서 현지 우량기업 상장유치활동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후원), 기업공개(IPO)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일 오전 11시 뒤셀도르프에서 현지 기업인과 금융관계자 등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자본시장 홍보 및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개최했다. 뒤셀도르프는 글로벌 의료기기 혁신의 본산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전시회 'MEDICA'의 개최 장소로 상장유치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날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에서 유럽 우량기업을 면담해 코스닥시장 상장 절차 및 준비사항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민홍기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



민홍기 한국거래소(KRX) 코스닥 시장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2023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닥은 의료기기·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라며 "이번 상장유치활동은 유럽 우량기업의 코스닥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LG 윈윈 페스티벌

도전, 기쁨, 환희, 영광
길고도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뜨거운 열원으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담은
뜻깊은 혜택으로 보답합니다



혜택 1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고객 감사 29% 할인 이벤트

-21일(화) 단 하루, 29% 할인 혜택 제공 | 기간: 11월 21일(화)

*본 행사는 LGE.COM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행사 모델 한정 진행됩니다. 세부 행사 내용 및 행사 모델은 LGE.COM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혜택 2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경품 이벤트

-EVENT 1: LG 베스트샵 매장 내 'LG 윈윈 페스티벌 포스터'를 찾아 본인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 증정 | 기간: 11월 18일(토)~11월 26일(일)
경품: LG 스탠바이미 Go (100명), LG 엑스북 360 (100명), LG 트윈스 유광점퍼 (300명), 커피 쿠폰 증정 (3,000명)

-EVENT 2: LGE.COM에서 'LG 윈윈 페스티벌' 이미지를 다운 받아 본인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3,000명 증정 | 기간: 11월 18일(토)~11월 26일(일)

-EVENT 3: LGE.COM에서 룰렛 이벤트 참여하면 다양한 경품 증정 (매일 290명 당첨, 매일 1회 참여 한정) | 기간: 11월 18일(토)~11월 26일(일)

경품: LG 그램 (1명), LG 디오스 와인셀러 미니 (50명), LG 톤 프리 (50명), LG 티운 미니 (50명), 29만 원 할인 쿠폰 (10명), 2만 9천 원 LG 멤버십 포인트 (179명)

*이벤트 참여 방법 및 경품 등 자세한 내용은 LGE.COM 통해 확인 바랍니다.

*경품 종류 및 수량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LG전자가 응원합니다



※본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엘지닷컴에서 확인하세요
LGE.COM

“이산화탄소를 잡아라”... 석화업계, CCUS 설비구축 올인

(탄소 포집·저장·활용)

2026년 CCUS 시장규모 33조 전망
SK이노-롯데케미칼 MOU 체결
탄소포집분야 경쟁력 강화 나서

SK어스온 탄소저장소 모색 중
호주·중서 해외프로젝트 참여

금호석화 내년엔 CCUS설비 구축
여수 국가산단에 연간 7만t 규모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 내 원유저장 지역.

/SK이노베이션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CCUS는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이다. 업계는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16일 국제 시장 조사기관 인터스트리아에 따르면 2026년 세계 CCUS 시장 규모는 253억달러(약 33조)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7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CCUS의 기술 기여도를 전체 탄소 감축량의 15% 수준으로 제시했다.

CCUS 시장 성장세에 석화업계는 C

US 기술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CCUS의 핵심인 탄소포집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롯데케미칼과 기술 및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리튬이온배터리용 분리막(LiBS) 기술을 활용해 탄소포집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21년 여수 1공장에 탄소포집 실증 설비를 구축해 기술개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화학사 최초로 석유화학산

업에 적합한 기체분리막 탄소포집 공정을 상용 규모로 설계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했다.

CCUS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저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국내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해외저장소에 수송하고 저장하기 위해선 국가 간 협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외교적 역할도 요구된다.

SK어스온은 국내 허브 부지와 말레이시아 탄소저장소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동·서해에서 지중 저장소 발굴

에 착수하고 호주·말레이시아·중국 등에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SK이노베이션도 CCUS 관련 법안이 마련된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저장소를 탐사 중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연간 7만t 규모의 CCUS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업계는 국내의를 가리지 않고 최적의 저장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국내 석화업계 관계자는 “저장소의 위치, 탄소 저장량, 운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에 맞는 최적의 저장소를 찾을 계획”이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CCUS 설비 누출 사고 발생 시 고농도 CO2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CCUS 설비 누출 사고 발생 경우를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 수칙이 준비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CCUS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에어부산 '日 정기노선' 누적 탑승객 1000만명

에어부산 일본 정기 노선 전체 누적 탑승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김해공항 입국 일본인 관광객 10명 중 6명이 에어부산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창립 이후 일본 정기 노선 전체 누적 탑승객 수치를 집계한 결과 올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에어부산은 2010년 첫 국제선 하늘길이었던 부산-후쿠오카 노선 취항 이후 오사카, 도쿄에 잇따라 취항했다.

2013년 일본 노선 누적 탑승객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5년 200만명, 2016년 300만명, 2017년 500만명, 2018년 700만명, 2019년 800만명, 2022년 900만명을 각각 돌파했다.

에어부산은 일본 노선 승객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내 11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10명 중 6명이 에어부산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전체 일본인은 총 13만 9000여명이었는데, 이 중 8만 4000여명이 에어부산 이용객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주력 노선인 일본 시장을 선점하고 꾸준히 입지를 다져온 결과 국내는 물론 일본 현지에서도 신뢰와 인지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관광객 수송에도 역할을 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AI가 촉발하는 변화, ‘기회’... 이슈·어려움 등 해결”

SK그룹 'SK 테크 서밋 2023' 개막
그룹 17개 계열사, 192개 기술 선배
차세대 AI 반도체 'X330' 최초공개

SK그룹의 테크 컨퍼런스 'SK 테크 서밋 2023'이 막을 올렸다.

SK텔레콤은 16일 SK그룹 17개사가 준비한 192개 기술을 선보이는 'SK 테크 서밋 2023'을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SK 테크 서밋은 전시, 발표 기술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으로 구성하는 등 글로벌 AI 컴퍼니를 목표로 하는 SKT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SK그룹 ICT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상 SKT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성 AI가 촉발하고 있는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SK가 AI를 통해 만들어가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확인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테크 서밋 2023'에서 유영상 SKT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SKT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사장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SK그룹 ICT 위원회를 통해 멤버사 간 기술 협력과 엔트로픽, 구글, AWS 등 빅테크는 물론 K-AI Alliance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

출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사장은 이어 “SK는 사람 중심의 AI를 통해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와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집단 지성을 교류하고 진정한 협력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정석근 SKT 글로벌/AI Tech사업부 담당이 SKT의 AI 기술 개발, 진화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GPT-3의 개발자이자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현 CSO) 재러드 카플란은 엔트로픽의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소개하며 SK와의 협력 방향도 밝혔다.

SKT가 설립한 AI 반도체 전문 기업 '사피온'은 류수정 대표가 행사장에 참석해 차세대 AI 반도체 'X330'을 최초 공개했다. X330은 타사의 최신 추

론용 모델 대비 약 2배의 연산 성능을 자랑하면서 전력 효율도 1.3배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SKT는 이번 행사에서 정식 출시된 AI 개인 비서 에이닷과 에이닷엑스 LLM을 축으로 AI를 활용한 일상과 산업 혁신 전략 사례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에이닷 슬립과 에이닷 TV 등 일상과 연결된 AI를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SK 관계사들이 협력해 제작한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도 만나볼 수 있다. AI 서비스의 확대에 수요가 급증한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서버(x86) 대비 전력 사용량이 수십배 높다. 특히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AI 데이터센터의 냉각을 위해 활용되는데, SKT는 SK엔무브 등과 함께 특수 냉각유를 넣어 냉각하는 차세대 열관리 방식인 '액침냉각' 기술을 개발해 전시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어스온, 베트남 해상서 원유 발견 '자원개발 낭보'

추가적 원유·가스생산 산출 기대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이 4년 만에 베트남 해상 광구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했다. 지난 9월 중국 17/03 광구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자원개발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SK어스온은 베트남 남동부 해상에 위치한 16-2 광구에서 탐사정 시추를 통해 원유층을 발견하고 산출시험(DST)을 실시한 결과, 첫번째 저류층 구간에서 일 생산량 최대 약 4700배럴 원유

및 7.4 MMscf(100만 표준 입방피트)의 가스 생산 산출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두번째 저류층 구간에 대한 산출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원유 및 가스 생산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시부존량은 세부 평가 작업을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탐사 단계에서 SK어스온이 원유 부존을 확인한 건 2019년 베트남 15-1/05 광구 이후 4년 만이다. 향후 SK어스온은 추가 탐사·평가정 시추를 통해 16-2 광구의 상업성을 평가하고, 충분한

상업성이 확보되면 개발 단계로 넘어가 유전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6-2 광구는 베트남에서 탐사 유망도가 높은 지역으로 좁히는 쿨롱 분지 내에 위치해 있다. SK어스온은 2019년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인 'PVEP'와 16-2 광구 참여 및 운영을 위한 지분참여 계약(FOA)을 체결하고, 2020년 16-2 광구 지분 70%를 인수하며 공식 운영권자가 됐다.

SK어스온은 1998년 15-1 광구의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베트남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15-1/

05 광구 및 15-2/17 광구, 16-2 광구를 추가로 확보했다. 15-1 광구는 2003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해 현재에도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15-1/05 광구는 2019년 상업성을 선언한 뒤 현재 원유 생산을 위한 개발을 준비 중이다.

SK어스온 관계자는 “베트남은 생산(15-1 광구), 개발(15-1/05 광구), 탐사(16-2 광구, 15-2/17 광구) 광구를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자원 개발의 유망지”이라며 “16-2 광구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한 만큼 석유개발사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스타 부스에서 삼성디스플레이 QD-OLED를 체험하는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게이밍모니터 체험하세요' 지스타서 체험이벤트 진행

삼성디스플레이 QD OLED가 전세계 게이머들에 우수성을 자랑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에서 '에일리언웨어 34 커브드 QD-OLED 게이밍 모니터' 체험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AMD와 함께 QD-OLED를 탑재한 델 테크놀로지스의 게이밍 PC 에일리언 웨어를 통해 QD-OLED 게이밍 모니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 검은사막과 파티에니멀즈, 출시를 앞둔 워헤이븐과 인조이 등 다양한 게임을 직접 체험하며 디스플레이 성능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용 기자 juk@

정황근 “식품 원료가격 올랐다고 양 슬쩍 줄이는건 꼼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료가 인상대비 과다인상 주시
“원료가 인하여 따른 제품가 인하여
업계에 협조 요청 강하게 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식품 원료가격이 올랐다고 이를 많이 쓰지 않는데도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냉철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밀 가격이 배 이상 올라갈 때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밀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제품가격이) 안 내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업계에 (가격인하) 협조 요청을 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품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 먹을 때 일일이 깨알같이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100g 들어가던 것을 90g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슬그머니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패키지가 다운사이징으로도 불린다.

정 장관은 용량축소와 관련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는 기획재정부나 우리 부나 공정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소비자단체가 나서는데 가장 자연스럽다”고 했다.

또 식품기업이나 외식 업체들이 원자재가나 인건비가 오를 때 이윤을 유지하지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에서 대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쪽으로 업계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와 관련 “김장 물가는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 됐고 원료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가구당 20포기의 김장비용은 19만

3106원으로 전년동기 21만5037원보다 10.7% 떨어졌다. 다만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2.3%에서 10월에는 8.0%로 폭이 확대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차관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28개 품목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섰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빵과 우유, 아이스크림, 커피, 과자, 라면,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품목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원가 부담 요인 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할당관세 확대 및 연장 등과 관련 “현재 4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업계가 원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소 렴피 스킨과 관련 “대처를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에 주변국에 다수 발생해 미리 54만두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발생 이후에 빠르게 추가백신을 들여와 지난 10일 접종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가축방역관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이 아닌 가축형 수의사가 1000여명 밖에 안돼 검역관련 수의사가 많이 비어 있다”며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중이며 특별채용 요건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국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산업부,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간담회

주요국들이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EU는 신배터리지침을 통해 2031년부터 코발트 16%, 리튬 6% 이상 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법을 통해 2022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최소 15%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을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지난해부터 마련 중이다.

올해는 배터리 원료, 가전제품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 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글로벌 규제 대응에 적합하게 하고, 국내 우수한 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재생원료 사용은 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플랫폼종사자, 계약 미체결 등 불리

정부 “표준계약서 견본 작업 중”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6일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이를 기반으로 만든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감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계약 미체결 등에 따른 불공정 노무 제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공통 계약서 견본을 작성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관은 “모든 일의 출발이자 기초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

르는 경우가 42.3%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 차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와 이를 이행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수탁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 간 계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 설명에 따르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계약서 견본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다”며 “그래서 표준적인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합동 점검

환경부, 다부처 합동성과발표회

정부가 최근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R&D)’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생태계 교란종 방제·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 차 17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다부처 합동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2017~2023년)’은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외래생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그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논문 135건 게재와 국내 특허 11건 등록, 시제품 19건 제작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가시박(고압박사), 양미역취(염수) 등 맞춤형 외래생물 방제 기술을 지자체 등 수요 기관의 관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외래생물을 방제해 효과적인 관리 및 방제비용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中 흑연통제 등 첨단산업 공급망 ‘모색’

산업부-배터리업계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 개최
삼성SDI·LG엔솔·SK온 등 참석
美·中·EU3대 주요국 통상방안 논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CI. /각사

정부가 배터리업계와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조치 등 주요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통상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경과 및 대응계획,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월 IRA 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드를 발표했고, 연내 최종 가이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EU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기업 준비현황을 점검했으며, 향후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내달 1일 시행되는 흑연 수출통제조치를 지난달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당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수급대응회의, 배터리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기업에 대한 우려해소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금강 제1철교, 철도소음피해 줄어든다

유도상화 개량 등 소음저감 대책 수립

금강 제1철교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던 대전 대덕구 석봉동과 신탄진동 주민

들의 소음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금강 제1철교 유도상화(소음·진동이 흡수될 수 있도록 자갈이 깔린 교

랑으로 변경) 개량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강 제1철교 주변은 활발한 도시개발로 현재 4개 단지 5669세대가 거주 중이고, 향후 655세대의 아파트가 추가 준공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국어 작년보다 어려웠고, 수학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다

국어 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요구
EBS 수능교재 체감 연계도 높아

수학 사고력 요하는 문항 위주 출제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제 추가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역 문항 자체 난도가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려웠고, 수학은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킬러)문항'으로 부를만한 문제도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 **국어, 작년 수능·9월 모평보다 어려워**
1교시 국어영역은 작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형상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선지를 세심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높이며 수험생이 어렵게 느끼도록 출제됐다는 게 입시업계와 현장 교사들의 평가다.

올해 수능 출제기조 분석에 나선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 국어영역은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높게 출제된 가운데,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149점이던 전년도 수능보다 15점 낮아지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EBS 현장 교사단은 이보다 이번 수능이 더 어려웠다고 분석한 것이다.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됐다고 파악했다. 교사단은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의 경우 킬러문항이 배제됐으며, EBS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수능교재를 밑도 있게 연계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출제 경향이 유지돼 수험생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교사단 설명이다. 교사단은 "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고, 특히 독서 지문 4개 모두 EBS 수능 교재에서 연계돼 체감 연계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입시업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 지난해 수능보다도 어렵게 출제됐다"라며 "수험생들이 언어와 매체 중 문법이 9월 모의평가보다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별력도 높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난해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불균형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국어 난도가 다소 높아져 변별력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메가스터디도 "선지에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 수험생은 지난해 수능이나 9월 모평보다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국어의 EBS 연계율은 51.1%, 총 23문항이다.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독서에서 10번·15번, 문학 27번,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40번·43번·45번, '언어와 매체' 39번 등이 꼽혔다.

◆ **수학, 9월 모평 기조 유지...다양한 난이도 골고루 출제**

수학영역은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사고력 필요한 문항을 위주로 출제하고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문항은 지양했다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측 설명이다.

EBS 현장 교사단은 "수학영역은 올

해 치러진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구성면에서 매우 흡사하며 최상위권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충분히 변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9월 모의평가에서 만점자가 6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보다 크게 늘어 최상위권 변별력이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2520명으로 934명이던 작년 수능보다 약 2.7배 많았기 때문이다.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4배 많다.

교사단은 "최상위권(체감 난이도)은 9월 모의평가와 지난해 수능 사이 정도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했다. 이어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거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라며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돼 수학 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는 과목별로 수학 I 15번, 수학 II 22번,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항을 꼽았다.

입시업계는 수학영역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제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임성호 대표는 "선택과목 중 미적분, 기하 9월 모의평가 대비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라며 "9월 모의평가 수학 만점자가 2520명 발생해 수능에선 최상위권 변별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병진 소장도 "전체적으로는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9월 모의평가 흐름을 이어가려는 출제였다"라며 "만점자 수 관리를 위해 미적분의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조절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이상동기 범죄 대응 '다다다 행동요령' 배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
자치구·경찰서·누리집 통해 배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잇따른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 (사진)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동요령은 ▲1단계: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2단계: 달아나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기 ▲3단계: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기 등 총 세 단계로 구성됐다.

시는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행동요령'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가구(의자·탁자), 소지품(가방·책)을 활용한 방어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물로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자경위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지방정부연합 아태지역 이사회 연임

140개국 24만여개 지방정부 회원

서울시는 15일 중국 이우시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태평양지구(UCLG ASPAC) 제9차 총회에서 차기 이사회 연임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UCLG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엔(UN)'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연합체로, 140개국 24만여개 지방정부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ASPAC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자체의 상호 협력

과 공동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을 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비정부 연합체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사회 활동을 시작해 올해 총회를 통해 9번째 연임됐다. 임기는 연임 즉시 시작되며, 3년간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서울과 함께 상하이, 타이베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56개 지자체 대표가 이사회로 선출됐다.

/김현정 기자

고려대, 하버드대-스탠퍼드대와 콘퍼런스 개최

'건강 위험·지속가능성 문제' 주제

고려대학교는 하버드대(Harvard), 스탠퍼드대(Stanford)와 17일 오후 1시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건강 위험과 지속가능성 문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콘퍼런

스는 수부 수브라마니안(S(Subu)V Subramanian) 하버드대 교수, 미셸 배리(Michele Barry) 스탠퍼드대 교수, 카렌 잉글스턴(Karen Eggleston) 스탠퍼드대 교수와 고려대 4단계 BK21 러닝헬스시스템 융합교육연구단, 정정보건과학 융합교육연구단, 환경생태공학교육연구단 교수가 참석해 콘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용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장 및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인류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바이오 헬스, 보건 의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새로운 60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세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응원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5개 자치구와 합동 점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과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법외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식약처 '규제외교' 팔걸어... 'K산업' 세계화 적극 지원

‘국회 지구촌보건의복지포럼’ 개최
“세계 각국의 규제변화 대응 위해 R2R체계, 규제조화 등 구축하고 국내-세계 규제 수준차이 좁혀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규제외교’를 위해 팔을 걷었다. K푸드와 K뷰티, K바이오 등 국내 산업의 글로벌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국의 규제 장벽을 낮추고 진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지구촌보건의복지포럼이 주최한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의복지포럼’에 참가해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라는 주제라는 강연에서 “세계 각국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2R(규제 기관 대 규제 기관) 체계 ▲규제 조화 ▲국제협약체 선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유럽연합(EU)은 K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의복지포럼’에서 이경률 지구촌보건의복지 이사장(왼쪽부터)과 오유경 식의약품안전처장,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면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를 18개월 만에 해제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EU 사무소를 현장 방문해 EU 관계자에게 K라면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규제 장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쟁력은 안전 관리에 있다”

라고 말했다. 제품의 안전성은 신뢰도와 비례한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제품 관련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오 처장은 “규제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내 규제 수준과 세계 규제 수준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 처장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해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미국 규제과학혁신 우수센터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오는 2024년 식약처는 미국과 공동으로 ‘AIRIS 2024’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분야와 관련된 국제 규제 심포지엄이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식약개발 및 의료기기를 위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강영규 식약처 연구관이 좌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세계 규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월 식약처는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리카의장으로 선임됐다. 식약처는 아프리카 ‘서울선언문’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식약처는 의약품 분야에서도 규제 해소를 위한 도약을 이어왔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

HO)가 식약처를 세계보건기구 우수규제기관 목록(WLA)에 등재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의 WLA 등재는 국내 의약품·백신 관련 규제의 우수성과 국내 의약품·백신의 안전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면서 국내 원료 의약품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지난 2016년에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회원국으로, 2014년에는 의약품실사 상호협력기구 등에 가입해 왔다.

이날 지구촌보건의복지포럼에는 대표의원인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경률 지구촌보건의복지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경률 이사장은 “K바이오가 전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눔을 연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오 처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무신사 흥대’ 오픈... “온·오프 가격 동일”

한문일 무신사 대표
“지속성장 위해 온라인 안주 않고 고객 접점·경험 확장 해결해야”



16일 무신사 흥대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한문일 무신사 대표이사가 오프라인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무신사

온라인을 기반으로 국내 패션 브랜드와 함께 성장해온 무신사가 서울 흥대 인근에 처음 선보이는 플래그십 스토어 ‘무신사 흥대(MUSINSA HONGDA E)’를 앞세워 오프라인 비즈니스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무신사는 서울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무신사 흥대’ 그랜드 오픈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무신사 테라스 흥대에서 오프라인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문일 무신사대표는 “성장하는 브랜드는 온라인 못지않게 오프라인에서 고객 접점과 경험을 확장하고 싶은 니즈가 강한데 이걸 무신사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무신사도 지속성장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신사 흥대’는 스트리트·캐주얼·포멀 등 무신사에 입점

된 150여개 브랜드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다. 앞서 지난 10월 27일에 무신사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대구 동성로에 ‘무신사 대구’를 먼저 오픈했으며, 이번에 서울 지역 거점으로 흥대에 신규 매장을 열게 된 것이다.

무신사는 2021년 자체 브랜드(PB) 오프라인 스토어로 ‘무신사 스탠다드 흥대’를 처음 공개하며 오프라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후 2022년에 무신사 스탠다드 강남, 2023년에 무신사 스탠다드 동성로·성수를 잇따라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무신사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 배경은 온라인에 비해 더 큰 시장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패션 카테고리 소매 판매액은 약 133조원으로 온라인 쇼핑 판매액 52조원에 비해 2배 이상 크다. 무신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패션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진출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현재 패션 시장에서 고감도 브랜드부터 가성비까지 갖춘 합리적 제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패션 브랜드 수백개를 한곳에 모아서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오프라인 편집숍이 없었다는 점은 무신사가 오프라인 진출을 적극 추진하게 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 대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온라인과 동일한 고객 경험 제공할 계획”이라며 “일반적인 패션 매장들이 인건비, 물류, 지대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이한 가격 정책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무신사는 온·오프라인에서 회원이라면 누구든 동일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쓱데이, 이마트서 삼겹살 반값 세일”

이마트가 16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연중 최대 행사 ‘2023 쓱데이’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헬스클럽은 오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3일 간 브랜드 한우 전 품목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삼겹살·목심을 50% 할인 판매한다. /손진영 기자 son@

신세계푸드, 호텔컬렉션 냉동국탕류 인기

출시 3개월 누적판매량 10만개 돌파 국탕류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냉장에서 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16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올해 7월 첫 선을 보인 ‘호텔컬렉션’ 냉동 국탕류 6종이 출시 이후 월 평균 27%의 높은 판매 성장률을 보이며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개를 돌파했다. 반면 신세계푸드의 3분기 냉장 국탕류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냉동 국탕류 간편식의 인기는 상온 또는 냉장 국탕류 대비 가공 공정을 최소화하고 급속 냉동 과정을 거쳐 원재료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세계푸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종류를 즐길 수 있는 ‘호텔컬렉션’ 한우국탕 5종 세트를 출시했다. ‘호텔컬렉션 한우국탕’ 5종 세트는 ‘한우사골고기곰탕’ ‘한우삼겹고기곰탕’ ‘한우

미역국’ ‘한우소고기곰탕’, ‘한우육개장’ 등으로 육수부터 건더기까지 100% 한우만 엄선하여 사용해 진한 육향과 맑고 깊은 국물 맛이 특징이다. 조리되어 있어서도 개봉하지 않은 제품 그대로 물을 넣은 냄비에 20분만 끓이면 완성되어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19일까지 신세계그룹의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쓱데이’를 맞이해 SS G닷컴에서 30% 할인된 2만7930원으로 단독 판매한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급속 냉동 기술과 가정간편식 개발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맛, 품질, 편의성 등이 뛰어난 냉동 국탕류 가정간편식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외식물가 및 식재료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 전문점 또는 집에서 먹던 맛과 정성 그대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냉동 국탕류 가정간편식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 IBD 치료제 경쟁력 알려

내일까지 ‘글로벌 IBD 홈커밍 데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세계 각국의 주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셀트리온그룹 엄중성 장질환(이하 IBD) 치료제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 ‘글로벌 IBD 홈커밍 데이 2023’을 개최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KOL)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홈커밍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캐

나다, 호주, 체코 등 총 11개국에서 IBD 분야의 핵심 의료진 약 40명이 참석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행사 첫 날 진행된 마케팅 세션에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인플릭시맙 SC제형으로 최근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획득한 램시마SC를 비롯해 유프라이마 등의 제품별 특징점과 리얼월드 데이터를 소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후 진행된 메디컬 세션에서 램시마SC의 경쟁력에 주목

했는데, 글로벌 임상 3상 사후 분석에서 확인된 램시마SC 증량 투여 및 단독 투여 관련 유효성 및 안전성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동사는 셀트리온 제2공장 및 글로벌생명공학연구원 투어를 통해 의약품 개발 현황 및 생산 공정 등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리딩 종합 바이오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셀트리온그룹의 경쟁력을 소개해 의료진들의 신뢰도를 높였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국내 의료진과 미팅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올해는 더 뜨겁다... 신작부터 체험존에 거대한 라인업까지!

부산 벡스코서 역대최대 규모 42개국 1037개사 3328부스 '서브컬처' 등 부대행사 강화 토크쇼 등 특집프로그램 운영 해운대서 드론쇼·불꽃놀이도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23'가 16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지스타 2023'은 부산 종합전시관 벡스코에서 열렸다.

지스타2023은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을 맡아 오는 1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올해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전 세계 42개국 1037개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년(2947부스) 대비 12.9% 확대된 3328부스가 마련됐다. 과거 최대 규모였던 2019년(3208부스)를 넘어 역대 최대 성과다.

특히 올해는 9년만에 부스로 참가하는 엔씨소프트와 스마일게이트, 2년 연속 메인스폰서를 맡은 위메이드, 내년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드래곤플레이, 넷마블, 구글플레이, 크래프톤 등이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존으로 참가하면서 관람객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이날 오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지스타 개막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참가사 최고경영자(CEO)들도 대거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구현범 엔씨소프트 부사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구현범 엔씨소프트 최고운영책임자(COO), 권영식 넷마블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지원길 스마일게이트 RPG 대표 등이 함께했다.

개막식 후 진행된 VIP 투어에서 CEO들은 위메이드, 넷마블,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RPG 등 부스를 둘러보며 작품들을 살피고, 답소를 나눴다.

김택진 대표는 "게임 IP의 본질적인 재미가 보여지도록 집중했고 이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인조는 아직 개발 초기인데 가능성이 많은 게임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9년만에 장르가 모두 다른 신작 7개를 선보이며 지스타2023에 부스로 참가했다.

올해 지스타는 그동안 게임 하위문화로 분류됐던 '서브컬처'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올해 도입된 '지스타 서브컬처 게임 페스티벌'은 컨벤션 홀 3층(그랜드볼룸)과 야외에서 B2C 전시 시간과 동일하게 4일간 운영된다. 그

랜드볼룸 내 설치된 지스타TV 무대와 페스티벌 전용 무대를 활용해 토크쇼 및 퍼포먼스 등의 특집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상시로 운영되며, 굿즈 마켓 및 전시존도 함께 구성된다.

벡스코 이외에도 부산 주요 지역을 활용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된다. 지스타 메인스폰서인 위메이드는 18일 저녁 8시부터 약 30분 간 해운대 광장과 해수욕장 일대에서 라이팅 드론쇼 & 불꽃 피라레를 진행하는 '위메이드 페스티벌 나이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부산 서면에 소재한 부산 이스포츠경기장에서는 '지스타컵 파이티즈스피릿 2023'이 18~19일 5개 종목의 종합 격투게임 대회로 진행된다.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를 포함하여 국내외 유명 격투게임 프로게이머들이 다수 출전하여 뜨거운 명승부와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게임업계, 응원한다”... 비공식 방문 격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자사게임, 로스트아크 모바일 체험

“다들 열심히 했다. 응원하는 마음이 크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가 지스타 2023 현장을 비공식 방문해 이같이 언급했다.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3 첫 날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가 현장을 방문해 넷마블, 위메이드의 게임을 체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CVO는 이날 오후 3시경 지스타 2023 B2C관에 방문했다. 권 CVO는 우선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지'를 체험했다.

현장에는 송모현 위메이드 COO와 석훈 이미지 위메이드 PD가 체험하고 있는 권 CVO 옆에서 게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권 CVO는 넷마블의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을 체험했다. 마찬가지로 김남경 사업 본부장과 구도형 넷마블 에프앤씨 PD가 체험하고 있는 권 CVO 옆에서 게임을 설명했다.

권 CVO는 앞서 위메이드, 넷마블 뿐만 아니라 엔씨소프트까지 각사를 대표하는 게임을 체험한 후 자사게임인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체험했다.

권 CVO는 현장에서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정식 출시 일정이나 목표를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지스타2023에 참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가 지스타 현장을 방문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한 모든 게임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창업자로 현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CVO,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CVO를 겸하고 있다.

권 CVO는 크로스피어를 개발한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로스트아크를 개발한 스마일게이트 RPG,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등 대부분의 게임 개발에 관련된 자회사는 모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실제 권 CVO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한국 50대 자산을 순위에서 51억 달러(6조 7800억 원)로 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부호다. /최빛나 기자

“이용자와 함께 소통해 좋은게임 만들 것”

9년만에 화려하게 복귀한 '엔씨' 각 게임 개발자 무대에서 게임 소개 슈팅 'LLL' 등 신작 3종 시연 부스

엔씨소프트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진행하고, 작품 7종을 공개했다.

엔씨(NC)는 각 게임의 개발자가 직접 무대에 등장해 게임을 소개하고,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했다. 지스타 작품작을 총괄하는 최문영 PDMO(수석개발책임자)는 "지스타에서 다양한 장르,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 위해 모든 개발팀과 엔씨(NC) 전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개발 과정을 이용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좋은 게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엔씨(NC)는 ▲슈팅 'LLL'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BATTLECRUSH)'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프로젝트 BSS' 등 신작 3종의 시연 부스를 운영한다

LLL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넓은 월드에서 많은 이용자가 함께 플레이하는 '오픈월드 다중접속(MMO) 슈팅' 장르 게임이다. 배재현 시더(Seedler)는 신규 트레일러를 소개하며 "다양



배재현 Seeder가 오프닝 스피치에서 신규트레일러를 소개하고 있다/엔씨소프트

한 무기·스킬 조합과 함께 자유롭게 오픈 월드를 누빌 수 있는 것이 LLL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배틀크러쉬는 '난투형 대전 액션' 장르 게임이다. 엔씨가 닌텐도 플랫폼으로 선보이는 첫 신작으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형석 캡틴은 "무너지는 지형을 피해 안전지역으로 돌아오거나 강력한 공중 공격으로 상대를 날려버리는 등의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다"며, "전략적인 팀 구성과 아이템 획득을 통해 최후의 1인이 되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BSS는 '블레이드 & 소울'의 세계관을 활용해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로 재해석한 신규 IP다. 고기환 캡틴은 "수집형 RPG 장르 본연의 재미를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월드 환경에 최적화된 액션과 모험으로 담아냈다"며, "단순 스펙 위주가 아닌 전투 환경과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전략적인 '팀 조합'의 재미와 수집과 조합의 묘미를 극대화하는 '전술 전투'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 RPG) TL은 12월 7일 출시를 앞두고 지스타 현장에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18일 오후 1시 안종욱 PD가 MC 정소림, 박상현과 함께 무대 행사를 진행한다. ▲1인 던전 ▲6인 파티 던전 ▲길드 레이드 등 최근 변화를 단행한 TL의 핵심 콘텐츠 시연을 볼 수 있다. 지스타 기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빛나 기자

尹 “韓, 글로벌 게임시장 선도 힘쓰겠다”

“국제 경쟁력 갖추는 것 목표”

게이머들의 최대 축제 '지스타2023'에 함께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게임 콘텐츠 제작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3 개막식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그는 국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애정과 진심으로 지스타는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국제 게임 엑스포로 거듭나고 있다"며 "게임 산업은 디지털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엄청나며 특히 영상과 음악, 스토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집약된 종합 문화예술로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e 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김관우 선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이 4개의 메달을 획득



윤석열 대통령이 지스타2023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최빛나 기자

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며 "정부는 게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부터 제도 개선까지 든든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시 이날 열린 '2023 대한민국 게임 대상'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국 게임이 전세계 시장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 쓰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14년 전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서 가슴이 벅차고 놀랐다"며 "그만큼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게임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2023. 11. 22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기조강연: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강 연: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 **오경석**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행사명 :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4~18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주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레지던시’의 위기



홍경안
시시일과

레지던시(Residency)는 예술가들이 예술창작 공간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과 국내외 예술 교류, 전시, 학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을 뜻한다. 작가들은 1년 안팎의 입주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의 조력과 작업실, 제작 비용, 설비, 시설 등을 지원받는다.

국내 최초의 레지던시는 1995년부터 개관한 광주광역시의 ‘팔각정스튜디오’다. 공원관리실을 개조해 사용했다. 2008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작스튜디오 정책이 본격 전개되면서 현재는 200여개의 공사립 레지던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레지던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문화재단의 금천예술공장,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아트플랫폼 등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서교예술실험센터와 신당창작아카데미, 부산문화재단의 흥타아트센터, 청주시립미술관의 청주미술창작스투

디오, 대전문화재단의 테미예술창작센터도 주목받는 레지던시에 속한다.

이중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를 통해 예술가의 존재 및 창작 활동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 사회적 ‘공유’에 앞장서 왔다. 15년 가까이 예술인 역량 강화, 국제 교류, 지역민 대상 예술 교육 등을 진행하며 낙후된 원도심을 새롭게 변모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인천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창작 활동에 반영할 수 있었던 ‘리서치 투어’를 포함해, 문화예술 활동으로 평화도시로서 인천과 서해 5도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자 마련된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등은 플랫폼만의 색깔 있는 기획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천아트플랫폼은 현재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인천시가 플랫폼의 주요 목적 사업인 레지던시 기능의 잠정 중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의 공론화 과정조차 없었고 대체할 공간 또한 마련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계는 사실상의 폐지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인천아트플랫폼 외에도 레지던시 기능을 중단하거나 시설 자체를 없애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민의 거점 공간이자 예술인 등용문으로 인정받아온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우연인지 흐름인지 헤아리기 어려운 창작공간 생태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는 형국임엔 틀림없다.

실제로 지난 4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을 맡았던 대구 1호 레지던시인 ‘가창창작스튜디오’가 문을 닫았다. 2009년부터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흥대 앞 예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온 서교예술실험센터도 운영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창작센터는 2021년 레지던시 입주작가 공모를 취소한 이후 운영을 멈춘 상태다.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 역시 현 부지에 제2문화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지속성이 불투명해졌다.

이 밖에도 국내 주요 레지던시로 꼽히는 곳들마저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추세다. 이에 미술계는 ‘정리’의 전 단계가 아닌지 우려한다.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K아트’ 바람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레지던시의 본질은 창작 진흥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꾸집으로, 주민의 문화적 질 향상과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 구축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사회적 창의성을 비롯한 미적 다양성 확대에도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만큼 레지던시의 의미와 가치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오랜 시간 한국 예술 창작의 기본 토대가 돼 왔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존립 여부의 ‘키’를 쥔 일부 정책 실행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레지던시를 다다익선식 성과주의가 결합된 행정 사업의 연장으로 본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를 밀어낸 자리에 스타벅스 입점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은 인천시의 사례처럼 산업 영역에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 레지던시의 위기도 여기서 비롯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몰이해와 천박한 가치관을 지닌 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레지던시의 앞날은 밝지 않다. 아니, 건강한 문화예술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해결 방안은 결국 문화예술에 관한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자체장을 잘 뽑는 것뿐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어느 날 갑자기 후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작금의 나라 꼬라서니 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투표의 중요성을. /미술평론가



스타벅스, ‘별다방 클래스’ 확대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하반기에도 고객 대상 스타벅스 커피세미나인 ‘별다방 클래스’를 확대 진행한다. 하반기 ‘별다방 클래스’는 진행 횟수 증가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상반기 대비 진행 횟수를 2배 확대해 전국 166개점에서 332회의 ‘별다방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SK증권, 임직원·시민과 헌혈 캠페인

SK증권이 임직원과 지역사회 시민이 함께하는 ‘생명 나눔 실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7일 마음혈액원에서 지원한 헌혈 버스가 SK증권 본사 앞에 상주해 임직원 및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K증권



KB증권,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KB증권은 지난 15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새들원에서 ‘무지개교실’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무지개교실’ 사업은 국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진행했다. /KB증권



르노코리아, 영업사원 누적판매 4000대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 영업사원 최초로 누적 판매 4000대를 기록한 슈퍼리어가 탄생했다. 르노코리아는 자사 최초로 누적 판매 4000대를 기록한 르노코리아 강서지점 원도희 슈퍼리어에 대한 축하 기념식을 1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

LG화학 임직원, 아이들 진로교육 진행

봉사단 ‘일일선생님’으로 방문 20대 신입사원부터 50대 임원까지

LG화학 임직원들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일 선생님이 되었다.

LG화학은 11월 한 달간 ‘그린클래스 임직원 봉사단’의 교육 재능기부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클래스는 LG화학의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초등학교·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ESG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자료를 만들어 전달하는 게 주된 역할이었다면, 올해는 그린클래스 처음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교육기관에 찾아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그린클래스 강사진은 사내 교육을 이수한 입사한 지 1년된 20대 신입 사원부터 50대 임원, 사내 변호사까지 총 32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임직원 그린클래스는 11월 중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방문해 200

여 명의 초등학교생에게 진로와 환경 교육을 진행한다. 진로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임직원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설명하며 꿈에 대해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경험을 한 강사로 채워진 만큼, 아이들은 강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진로 상담을 받게 된다.

강재철 지속가능담당은 “미래세대가 마주해야 할 고민에는 환경과 사회 문제를 포함해 진로와 꿈에 대한 걱정도 포함될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더 넓혀가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하는 LG화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유방암 예방”

이대목동병원 안정신 교수 연구 성과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유방암 진단과 예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 안정신 교수(사진)는 올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유방암의 진단, 치료, 예후, 다른 암 또는 질환과의 연관성, 예방을 위한 프로바이오티스 연구 성과를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월 27일 ‘유방암 환자의 이차



원발암 발생과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유럽종양외과학회 우수 포스터 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유방암에서 지방간과 마이크로바이옴 관계 규명 연구 성과’ 9월 대한종양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구연상 ▲‘갑상선암, 유방암, 에스트로겐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규명’ 4월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 등을 수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생명연-IBS,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두 기관 보유 인적·물적 자원 협력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과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손을 잡는다.

생명연과 IBS는 16일 생명연 대전 본원에서 연구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활성화와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는 무병장수 시대를 열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 분야의 기초연구 성과가 신약으로 개발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수십조 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성공률 또한 매우 낮아 기초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왼쪽)과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이 16일 생명연 대전 본원에서 연구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응용연구와 상용화로 연결해줄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대표 기초연구기관인 IBS와 국가바이오 인프라와 신약 개발 중개연구에 강점을 보유한 생명연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 두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7일 (금)
음력 : 10월 5일

수도권 날씨
-1 ~ 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13 | 해질 / 17:20

연천 -4/3, 동두천 -2/3, 가평 -3/4, 파주 -3/3, 서울 -1/3, 양평 -2/4, 인천 1/3, 수원 0/4, 용인 0/4, 평택 -3/5

백령도 2/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Gallery **아람**

“추억의 보리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보리美學

박영대 기획초대전

2023.11.8(수)-11.21(화)

갤러리 아람 (관람시간: 오전 11시 ▶ 오후 7시)

한국 화단에서 '보리작가'로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는
송계(松溪) 박영대 화백

〈보리-생명〉의 테마로 서양적 추상을 넘나드는 박영대 화백의 생명력 넘치는 '보리그림'의 최신작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박영대 화백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 백양회 최고상, 일본 미술의 제전 도교전 대상 등을 수상하고, ICA 국제현대미술협회, 서울미술협회 등 다양한 미술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역 미술발전에 기여함을 인정 받아 2023년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보리미학'이라는 주제로 3개월간 기획초대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박 화백의 작품은 청주시립미술관과 보리생명미술관, 충북도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에 소장돼 있으며, 도교육청에 걸려 있는 '맥파'는 1978년 백양회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유명합니다.



중구청	
충무로역	CJ사옥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충무초등학교	무료관람 주차가능
엠배서더 서울 풀만	동대입구역
갤러리 아람 (구. 호랑나비 갤러리)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말의 품격과 은행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언어의 품격'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고. 입을 통해 뱉는 말이 불과 30초밖에 안되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남아 복이 되든, 화가 되든 작용한다는 의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갑질하고 있다'며 은행을 다시 한 번 직격했다. 올해 초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은행권의 고동분담을 요구한 이후 두번째다. 종노릇, 갑질 등 표현이 조금 더 격해졌다. 은행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다. 주요 은행들이 바빠졌다. '상생금융 시즌2' 묘안 짜기에 바쁘다. 대통령의 격한 발언에 이달 들어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발빠르게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이자캐시백,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으로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도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계

층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신한금융의 지원 규모는 하나금융보다 50억원 많은 1050억원. 그렇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생색내기 수준이 아닌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은행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다.

결국 은행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막을 장치 마련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은행은 비가 올 때 금융 소비자의 우산 역할을 해야 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의 품격과 절제력을 엿볼 수 있어서다. 결국 좋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말에서 시작된다. 입에서 나온 30초의 말이 상대방을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은행권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절제 대신 직

설법을 썼다. 그 말이 순기능(상생금융 확대)으로 작용하겠지만 부메랑(부실증가 우려)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은행이 이자장사를 한다고 핀잔을 주지만 시장경제에서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각 은행이 처한 여건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다.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 배당만 늘린다고 '미운털'이 박힌 형국이다. 은행은 국가가 내준 라이선스로 영업을 한다. 나라님이 크게 혼을 내지 않아도 말을 잘 들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은행을 향해 격하게 반응하기 이전에 금융당국이 먼저 나섰으면 어땠을까. '가져오면 좋은 것을 고를게'라며 안심했던 것은 아닐까. 은행에 상생금융안을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컨설팅을 할 수도 있었다. 좀 더 너그러워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도 있다.

상대방을 꼬집을 때도 언어의 품격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특정 업종을 향한 격한 발언이 아쉬운 이유다.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은행은 물론 은행업과 관련있는 모두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다.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정치이고, 통치다. 나눈셈이나 뺄셈보다 덧셈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리더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스페인 총리 대행의 사면 거래



기 지 수
박 태 흥
(정치경제부)

필자의 스페인 마드리드 숙소 앞에는 하원 의사당이 보인다. 양원제인 스페인에서 4년 임기로 구성되는 350명의 스페인 하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이곳에 전문이 감돌고 있다. 숙소에 갈 때 마다 총기를 휴대한 스페인 경찰들은 목적지를 확인한다. 방송국은 야외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중계차도 진을 쳤다. 정권 연장을 위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대행이 '사면 거래'라는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이다.

스페인사회노동자당(PSOE)는 지난 9일(현지시간) 카탈루냐(스페인의 북동부 자치주) 분리주의 정당 '카탈루냐를 위해

함께' 정당과의 협상에서 정부 구성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산체스 총리 대행은 지난 5월 사회노동자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7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렀다. 조기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 원내 1당이 야당인 국민당(PP)이 정부 구성을 위한 총리 인준 투표에서 과반을 점하지 못해 부결되자 산체스 총리 대행에게 기회가 넘어왔다.

산체스 총리 대행은 좌파 정당들과 분리주의 정당들의 지지를 확보해 정부 구성인준 투표 의결정족수 확보에 나섰다. '캐스팅보트'인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과 협상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1400명에 달하는 카탈루냐 독립운동 연루 인사의 사면이었다. 그중엔 2017년 분리독립 운동 관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되자 벨기에 브뤼셀로 망명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

탈루냐 자치정부 수반도 있었다.

카탈루냐주는 첨단 산업과 농업 등이 발전해 스페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만큼 부유하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 2017 카탈루냐주의 독립을 선포했지만, 중앙정부가 주의회를 해산하고 자치권을 박탈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집권을 위한 '사면 거래' 소식이 알려지자, 스페인 우파 정당과 지지자들은 사회노동자당 당사가 있는 마드리드 페레즈 거리에 모여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스페인의 판사와 검사들은 행정부의 사면권 남용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카탈루냐 독립'이라는 스페인의 오래된 사회 균열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15일과 16일 하원 의사당에서는 정부 구성 인준을 위한 토론과 표결이 있어 스페인 정국은 더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pht285@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음 10월 5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나 불청객이다. 48년생 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60년생 상식 밖의 일이었으나 실적에는 도움. 72년생 내 것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84년생 건강하게 살게 되니 조상님께 감사.
- 소** 37년생 매대는 망설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49년생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일시적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73년생 세상은 끝이 없는 넓은 바다. 85년생 돈은 없으나 기술이 다양하여 대우받던 날들.
- 호랑이** 38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저하니 실망은 금물. 50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62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74년생 돈에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86년생 잊고 살다 보니 낙원이 따로 없다.
- 토끼** 39년생 자식이 시험이 목전이라면 관용 기도를 해볼 것. 51년생 지혜는 부족하나 근면 성실로 극복한다. 63년생 한가지로 밀고 나가라. 75년생 세상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다. 87년생 돈보다는 기술로서 능력을 키워라.
- 용** 40년생 나를 이해해 주는 배우자가 있어 감사. 52년생 결심에 보일 때 강하게 밀고 나가자. 64년생 문서나 계약을 꼼꼼하게 살펴라. 76년생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게 마련 생각해보라. 88년생 주변에 근거 없는 말에 동요되지 않도록.
- 뱀** 41년생 남이 칭찬을 해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 53년생 피상에 말리지 말도록 해야. 65년생 남의 험담에 끼여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77년생 자신을 알면 흥볼 것도 없다. 89년생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
- 말** 42년생 사돈이라도 항상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 54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66년생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78년생 운전 시에 양보하도록. 90년생 친구의 깊은 우정에 감사.
- 양** 43년생 모임이 있어 먹을 복이 많은 날. 55년생 작은 일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67년생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79년생 뜻이 있다면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공부하라. 91년생 연인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인내를.
- 원숭이** 44년생 누구에게나 공정은 인생길을 반전. 56년생 혼자서 하는 직업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68년생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80년생 언행을 조심하고 음주를 주의하도록. 92년생 부인에게 하나를 일러주면 셋을 알게 되니 기쁘다.
- 닭** 45년생 남의 조언을 가버어 여기저기 말자. 57년생 금전 문제로 마음의 근심이 쌓인다. 69년생 헤어지려는 이성에게 너무 조바심하지 말자. 81년생 공연한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93년생 작은 일이라도 신중히 처리해야.
- 개** 46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운 법이 있는 법. 58년생 노력하니 성과도 다르다. 70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도 거칠 것이 없다. 82년생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94년생 이직은 행복이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진 별천지.
- 돼지** 47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5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 애하길. 71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이다. 83년생 조금해하지 말아라. 95년생 실적이 없다면 나이가 들어 공상맞은 초라한 모습이 된다.

김상회의四季

고수와 하수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고수라고 한다. 요리 바둑 공부 운동 어느 분야든 고수가 있다. 남달리 기량이 뛰어나 성과가 좋고 보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다. 투자의 세계에도 당연히 고수가 있다. 필자가 알고 지내는 주식투자 고수는 수익과 손실을 넘나들며 흐름을 탄다. 고수라면 수익만 내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신이 아닌 이상 손실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총합으로는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고수가 맞다. 가끔 팔자상담을 와서는 투자도 인생살이도 모두 쉽지 않다며 웃음을 보이고는 한다.

평범한 투자자는 일명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투자자이다. 투자 고수를 보면 일반 투자자와는 뭐가 다를까. 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하는 방법과 마음 자세가 개미와 다르다. 고수는 먼저 수익을 줄 만한 기업을 찾는다. 그런 기업을 찾으면 적정 주가가 얼마일지 계산하고 주가가 적정가치보다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조금 해하지 않는다. 주가가 가치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매입한다. 주가가 오르내려도 흥분하지 않는다. 호황기가 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도에 나선다는데 긴 호흡으로 확실한 수익을 추구하는 길을 간다.

개미는 큰 고민 없이 주식을 산다. 사고 난 뒤에는 주가가 조금만 오르고 내려도 어쩔 줄 모르다가 쫓기듯 팔아버린다. 고수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흔들림 없이 투자하고 개미는 갈팡질팡한다. 인생을 사는 것도 비슷하다. 팔자와 운세를 조망하고 그 흐름을 타면서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쩔 줄 모르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 인생길도 운세를 바탕으로 소신 있게 걸어가면 하는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3	2		9		6		
								9
	9					3		
						1	9	
	7		2		6			4
	4	6						
			8					5
4								
	5			1		4	8	2

4				9		7	8	
5		7		4				
					8		5	
1		3						
	5							4
							8	1
		9		2				
					7		2	9
2	7		6					5

2	8	7	6	1	4	8	9	5
4	8	9	8	7	9	6	1	7
1	9	6	7	9	8	8	2	4
9	4	2	1	8	6	9	7	8
8	7	8	9	9	2	1	4	6
9	6	1	4	8	7	9	8	2
8	1	8	2	7	9	4	6	9
6	2	9	8	4	8	7	9	1
4	9	4	9	6	1	2	8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1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탈리아 명예회복... 세계 1위로 부상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6

연말이다. 전 세계 와인 평론 매체들이 올해의 100대 와인을 줄줄이 내놓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톱10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와인의 가격이 뛰고, 물량은 동이 난다. 와인애호가들 입장에서 올해 마셨던 와인, 또는 사서 쟁여놓은 와인이 목록에 올랐다면 그 자체로 짜릿함을 느낄 것이고, 그게 아니라도 와인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올해의 특징은 이탈리아의 명예 회복이다. 두 군데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와인 전문가 와인 스펙테이터가 뽑은 올해의 최고 와인은 '아르지아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18년 빈티지다.

와이너리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스타일이 확고히 다른 와인업계에서는 주인이 바뀌는 것은 위기이자 기회다. 아르지아노에

TOP 10 OF 2023



와인스펙테이터 선정 2023년 톱 10 와인.

/Wine Spectator

게는 기회가 됐다. 2013년 아르지아노를 인수한 브라질의 역만장자는 아르지아노를 브루넬로의 좀 더 전통적인 스타일로 변화시키겠다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고, 우아한 2018년 빈티지를 만나며 결실을 맺었다. 전통적인 브루넬로답게 장미와 딸기, 체리향과 풍미가 잘 나타났고, 허브와 미네랄, 마른 잔디의 느낌이 고급지다는 평가를 받았다.

와인스펙테이터는 와인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지만 순위는 꼭 점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점수로 나타난 품질 외에도 가격과 접근성은 물론 와인에 담긴 스토리까지 합산된다. 톱10 와인의 평균 점수는 93점, 평균 가격은 미화 54달러다. 물론 비싼 와인도 있지만 가격과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인만큼 60% 이상이 50

달러 이하이며, 25%의 와인은 25달러도 안된다.

미국 피노누아의 선전도 두드러졌다. 2위가 '옥시덴탈 피노누아 웨스트 소노마 코스트 프리스톤-옥시덴탈 2021', 4위가 '레인 피노누아 소노마 코스트 로얄 세인트 로버트 퀴베 2021'이었다. 이와 함께 와인스펙테이터에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 소비농블랑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그레이웨이 소비농블랑 말로보 2022'다.

와인 인투지에스트 역시 1위 와인으로 이탈리아를 선택했다. '포지오 디 소토, 부르넬로 디 몬탈치노' 2018년 빈티지다. 포지오 디 소토는 부르넬로 디 몬탈치노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중 한 곳이다. 흙의 느낌에 미네랄, 탄탄한 골격, 좋은 산미까지

잘 갖춰져 숙성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와인 인투지에스트는 마시기 좋은 시기를 무려 10년 뒤인 2033년까지로 봤다.

와인 평론가로 유명한 제임스 서클링은 좀 다른 선택을 했다. 화이트 와인에 대한 애정이 깊기로 유명했는데 이번엔 1위로 샴페인을 올려놨다.

훌륭한 질감에 깊이, 복잡미까지 놀라운 품질로 평가되며 1위를 차지한 샴페인은 '로랑 페리에 그랑 시에클 그랑드 퀴베 N. 26'다. 2012년 빈티지가 65%, 2008년 25%, 2007년 10%를 섞어 만들었다. 2012년은 미묘하고 밝은 과일향과 함께 균형미를, 2008년은 깊이, 마지막으로 2007년으로 생동감까지 조화를 잘 이뤘다. 병당 가격이 미화 235달러나 한다는게 유일한 단점으로 꼽혔다.

제임스 서클링이 100대 와인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시음한 와인만 총 3만9000개다.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가별로는 100대 와인 가운데 프랑스가 33개로 가장 많았다. 그레이트 빈티지로 평가된 2020년 와인이 출시되기 시작한 영향이 컸다. 이탈리아가 17개로 그 뒤를 이었고, 칠레와 스페인이 각각 8개씩이다.

/smahnl@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자신의 광맥을 찾아내는 법

기자들의 자소서에는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되겠다'는 말이 단골로 나온다.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가기 전 카나리아를 안에 풀어놓고 새의 생사를 통해 유독가스가 얼마나 퍼졌는지 판단한다. 고로 저 문장은 카나리아처럼 사회의 위기를 재빨리 포착해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겠다는 의미일 터.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폴 슈레이더 감독의 '퍼스트 리프트'라는 작품에 "통증 없는 중병의 시대에 먼저 앓고 대신 아픈 자가 써내려간 몸의 일기"라는 한줄평을 남긴 것을 보면, 언론인과 예술가, 이 두 직업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 듯하다.

도쿄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교직 생활을 하던 나쓰메 소세키는 영국에 국비 유학생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극도의 신경쇠약을 앓게 된다. 그의 말과 글을 엮은 책 '나쓰메 소세키 - 인생의 이야기'에는 왜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와 있다. 처음 책을 편 독자들은 당혹스러울 수 있다. 소세키가 맡겨진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싫다고 엄청나게 투덜대기 때문. 그는 "(강연하는 날까지) 뭔가 정리된 이야기를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아무래도 기분이 좀 내키지가 않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구시렁댄다.

그는 왜 속으로만 욕하고 말면 될 일을, 굳이 사람들 앞에 꺼내놓는 걸까. 책의 중반부에 그 이유가 나온다. 소세키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인생의 이야기

나쓰메 소세키 지음/박성민 옮김/시와서

상 뭔가를 해야 한다, 하면서도 뭘 해야 좋을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고,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고독한 인간처럼 꼼짝도 못하고 멈춰 섰다. 그리고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비치지 않을까 하고 희망하기보다는 내 쪽에서 탐조등을 이용해 단 한 줄기라도 좋으니 앞을 환히 보고 싶은 기분이었다"고 말한다.

마치 자루 속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소세키는 고백한다. 번뇌하던 그는, 자루를 찢을 송곳을 찾아내고야 만다. 소세키가 구한 답은 '자기본위'다. 소세키는 당신들도 자신만의 곡괭이로 광맥에 닿을 때까지 파보라고 권한다.

320쪽. 1만3800원. /김현정 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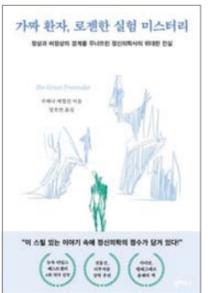
가짜 환자, 로젠한 실험 미스터리

수재나 캐럴린 지음/장호연 옮김/북하우스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젠한은 8명의 정상인과 함께 정신질환자로 위장해 정신병원 입원을 시도한다. 정신의학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려낼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병원은 모두 그들을 정신병자로 오진했다. 실험 결과

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수많은 정신병원이 문을 닫았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라는 논쟁에 불을 붙였다. 정신의학에 우리의 정신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를 고민해보게 하는 책.

500쪽. 1만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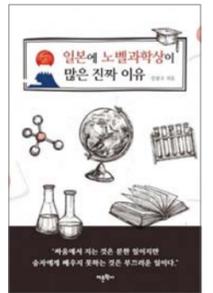


일본에 노벨과학상이 많은 진짜 이유

강철구 지음/어문학사

25:0.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수 차이이다. 이는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이 여전히 과학기술, 특히 원천기술 분야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이 많은 진짜 이유'는 일본 과학기술의 발전사와 노벨과학상 수상자 25인을 시대별로 구

분해 살피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기다려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싸움에서 지는 건 분한 일이지만, 승자에게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52쪽. 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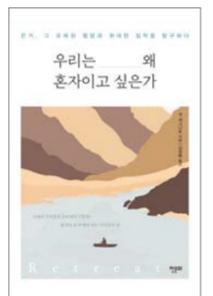


우리는 왜 혼자이고 싶은가

넷 세그니트 지음/김성환 옮김/한문화

변화를 향한 열망, 사람에 대한 혐오, 고요함에 대한 동경 등을 이유로 사람들은 은거를 갈망한다. 책은 '은거에 대한 열망'을 관개된 모든 것과 잠시 결별하고 물러서 가만히 나와 세상을 즉시하며 다시 나아가갈 힘을 얻고자 하는 충동'으로 설명한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들은 명

상과 기도에 온 삶을 바치고, 게임 중독자는 온라인 세상에 빠져 스스로를 방에 가둔다. 저자는 은거 생활의 높은 인기는, 정치·환경 등 각종 사회 문제로 터질 듯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충동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한다. 420쪽. 2만5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연방정부 연금, 중국 이어 홍콩도 투자 목록서 제외 /사진 뉴시스
▲"美 경제 연착륙 가시화"...6개월 전과 달라진 전망

▲中언론, 바이든·시진핑 회담에 "미중 관계 미래는 밝아"
▲일본 10월 무역수지 5조7000억 원 적자...연화 약세 등 영향



▲40일 간 언론인 42명 사망...팔 37명 -이 4명 등 /사진 뉴시스
▲러 "美, 러에 APEC 막후 비공식회담 제안...만날 계획 없어"



첨단재생으로
임상시험 29%↓
규제 완화 시급
04



Life

TOP 10 OF 2023

이탈리아 와인
명예회복
세계 1위 부상
L7



정통성에 특허기술 버무려 한국인의 김치 넘어 '세계인의 김치'로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대상 '종가 김치'

김치에 대한 전문성과 정통성을 이어가며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입맛과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브랜드가 있다. 식품회사 대상의 김치 브랜드 종가(JONGGA)는 최초의 포장 김치를 개발한 정통성과 김치 시장 1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사랑받는 김치 브랜드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1980년대 정부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알리기 위해 상품화를 추진했다. 이에 인간문화재 38호이자 조선 궁중음식 전수자인 고헌혜성 고문 등 김치 장인들이 모여 표준화된 조리법을 개발했으며, 김치 포장과 김치를 맛있게 발효시키는 데에 필요한 유산균·종균 개발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그 결과 표준화된 맛의 한국 최초의 포장 김치 '종가집 김치'가 탄생하게 됐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종가집'과 '종가'로 나뉘어 있던 국내의 브랜드 이름을 '종가'로 통일하고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 확장을 선언했다. 종가 김치는 현재 미주와 유럽, 대만과 홍콩 등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진출해있다. 일본 수출 물량 90%,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에 수출되는 물량 80% 이상을 현지인이 소비하는 등 그 인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으며, 미주와 유럽 등 서구권에서도 김치를 찾는 현지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수출액은 2016년 2900만달러(약 384억원)에서 지난해 7100만달러(약 941억원)로 2.4배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국내 총 김치 수출액 중 대상 종가 김치의 비중은 50%에 달한다.

종가는 국내 포장 김치 1위 자리 또한 확고히 지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40%로 연간 매출액은 2000억~3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가는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 김치를 담근다는 원칙을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연간 국산 배추 사용량은 약 6만에 달한다. 생육시기별로 품질이 다르고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배추의 특성을 고려해 시기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최고 품질의 배추를 사전 구매해 비축, 사용한다. 오랜 기간 동안 배추를 비축할 수 있는 저장기술을 개발해 비축량을 확대함으로써



포장김치 최초로 개발한 '포장김치 1위'
국내 김치 수출액 중 50% 비중 차지해

출시부터 100% 국내산 재료 원칙 그대로
유산균 연구로 좋은 맛 유지, 유통기한 ↑
배추 비축 저장기술 개발해 안정적 수급

40여 개 국가에 수출... 인기 점점 커져
지난해 美 현지 대규모 공장서 생산 시작



해외 소비자가 종가 김치를 맛보고 있다.



종가가 지난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김치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대상

써 안정적인 수급을 가능케 했다. 배추 외에도 고추, 마늘, 양파 등 김치에 들어가는 원재료들도 산지 직송을 통해 공급받는다.

종가는 포장과 유산균 배양 기술을 통해 맛있는 김치를 생산할 수 있었다.

처음 김치를 상품화할 때 가장 큰 난관은 탄산가스를 잡는 것이었다. 김치는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탄산가스가 발생하는데, 진공 포장을 하면 포장재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종가는 1989년 탄산가스를 붙잡아두는 '가스흡수제'를 김치 포장 안에 넣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김치 고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장 형태를 유지하고, 유통 과정에서 파손을 막을 수 있었다.

종가는 이 기술로 특허를 출원, 1991년 업계 최초로 KS마크를 획득했다. 이어 1995년 전통식품 인증마크를 획득하며 세계일류화상품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김치 유산균 연구에 주력했다. 2005년 종가는 '류코노스톡 DRC0211' 김치 유산균 배양에 성공했다. 가장 맛이 좋은 김치에서 500여 종의 유산균을 분리해 좋은 맛을 내면서도 빨리 시지 않는 독특한 유산균을 찾아내 상품화했다.

지난 2011년 국산 배추를 발효해 개발한 '식물성 유산균 발효액 ENT'는 식품의 유통 기한을 최소 50% 이상 연장시켜주고, 합성 첨가료 대체 상품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종가 김치는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에 대규모 김치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위치한 LA 공장은 총 대지 면적 1만㎡(3000평) 규모다. 현재까지 약 2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000t의 김치 생산이 가능한 제조라인과 원료창고 등 기반시설을 갖췄다. 대상은 자동화 설비 및 시설을 확충해 2025년까지 미국 현지 식품사업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현지에도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폴란드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현지 기업의 생산시설과 유통망을 활용해 종가 김치를 유럽 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2024년 폴란드 신규 공장을 준공해 본격적으로 김치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폴란드 공장 완공까지 약 15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연간 3000t 이상의 김치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삼성 오승환, 은퇴는 없다...현역 연장 가닥 /사진 뉴시스
▲K리그 별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유연수 위해 뭉친다

▲손흥민, 또 무관에 그치나...토틀넘, EPL 우승 확률 0.3%?
▲우리카드, 최하위 KB손해보험 상대로 3연승 도전



▲김시우·이경훈 등 PGA 투어 마지막 대회 출격 /사진 뉴시스
▲IOC 올림픽박물관에 태권도 동상... "영원한 동행·굳건한 위상"